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4. 2 | No.173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산업 포커스

주요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4. 2 | No. 173

# 차 례

##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	5
(1) 세계 경제 .....	5
(2) 국제 금융·유가 .....	6
2. 주요국 산업 동향 .....	7
(1) 중국 .....	7
(2) 미국 .....	11
(3) 일본 .....	13
(4) 유로존 .....	14

## II. 국내 실물경제

1. 국내 경기 .....	16
2. 고용 .....	18
3. 물가 .....	19
4. 국내 금융·외환 .....	20
5. 수출입 .....	22

##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	23
(1) 총괄 .....	23
(2) 자동차 .....	26
(3) 조선 .....	27
(4) 일반기계 .....	28
(5) 철강 .....	30
(6) 정유 .....	32
(7) 석유화학 .....	33

(8) 섬유 .....	34
(9) 가전 .....	36
(10) 무선통신기기 .....	37
(11) 반도체 .....	39
(12) 디스플레이 .....	40
<b>2. 서비스산업 .....</b>	<b>41</b>
(1) 생산 .....	41
(2) 고용 .....	44
(3) 서비스수지 .....	46

#### IV. 지역별 동향

<b>1. 개관 .....</b>	<b>48</b>
(1) 생산 .....	48
(2) 고용 .....	49
(3) 수출 .....	51
<b>2. 지역별 동향 .....</b>	<b>52</b>
(1) 수도권 .....	52
(2) 충청권 .....	54
(3) 호남권 .....	56
(4) 대경권 .....	58
(5) 동남권 .....	60
(6) 강원·제주권 .....	62

#### V. 산업 포커스

1. 주요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	65
-------------------------------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4. 2 | No. 173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 I

## 해외 경제 동향

### 01 대외 여건 동향

#### (1) 세계 경제

- 미국은 지난해 12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반등과 선행지수 하락세 둔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고조
  -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소비(전기비 2.8%)와 투자(1.0%)의 동반 증가, 수출 증가(6.3%) 등에 힘입어 3.3%를 기록하고, 연간 전체 성장률은 2.5%
- 일본은 11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내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유로존은 11월 역내 지표들의 약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
  - 일본은행(BOJ)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임금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유로존은 역대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증폭
- 중국은 지난해 12월 생산·수출 확대와 소비 둔화 등 내·외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디플레 우려가 부상
  - 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높아지면서 2023년 성장률도 5.2%를 기록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내수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와 장기유동성 공급을 단행

##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실질GDP <sup>1)</sup>	1.9	2.5	2.1	4.9	3.3				
	산업생산	3.4	0.2	0.2	0.5	-0.8	0.1	-0.8	0.0	0.1
	소매판매	9.7	3.4	0.1	1.7	1.0	0.8	-0.3	0.3	0.6
	무역수지 <sup>2)</sup>	-951.2	-773.4	-202.2	-183.1	-188.0	-60.6	-63.9	-61.9	-62.2
일본	실질GDP	1.0	-	0.9	-0.7	-				
	광공업생산	0.0	-	1.4	-1.2	-	0.5	1.3	-0.9	-
	소매판매	2.6	-	0.5	2.5	-	0.4	-1.7	1.1	-
	무역수지 <sup>2)</sup>	-19,966	-	-1,779	-942	-	65	-667	-780	-
유로	실질GDP	3.4	-	0.2	-0.1	-				
	산업생산	2.2	-	-1.2	-1.4	-	-0.8	-0.7	-0.3	-
	소매판매	0.9	-	-0.1	-0.4	-	0.0	0.4	-0.3	-
	무역수지 <sup>2)</sup>	-342.8	-	2.3	24.6	-	9.2	11.2	14.8	-
중국 <sup>3)</sup>	실질GDP	3.0	5.2	6.3	4.9	5.2				
	산업생산	3.4	4.6	4.5	4.2	6.0	4.5	4.6	6.6	6.8
	소매판매	-0.8	7.8	11.4	4.2	8.4	5.5	7.6	10.1	7.4
	수출(달러화)	5.6	-4.6	-4.8	-9.9	-1.3	-6.8	-6.6	0.5	2.3

자료: 미국 상무부·연준, 일본 내각부·경제산업성·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2) 국제 금융·유가

### □ 2월 초 달러화 강세 및 유가 변동폭 확대

- 달러화는 1월 중 미국의 견고한 소비와 인플레이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감 및 연준의 금리 동결과 매파적 입장 표명 등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2월 들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시연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강세 지속

##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3								202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3일
엔/달러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1.04	146.92	150.80
달러/유로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1039	1.0818	1.0709
미국채 (10년만기)	3.64	3.84	3.96	4.11	4.57	4.93	4.33	3.88	3.91	4.31
WTI유	68.1	70.6	81.8	83.6	90.8	81.0	76.0	71.7	75.9	77.9
두바이유	72.1	76.1	85.6	87.2	92.9	86.7	84.3	76.5	81.2	82.7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달러화는 1월 중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각각 4.2%와 2.0% 상승하고, 2월 초 현재(2월 13일 기준) 2.6%와 1.0% 추가 상승
- 유가는 연초에 홍해발(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한파 지속에 따른 원유 생산 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전개 양상과 미국 원유재고 증가세 및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변동폭이 확대
  - WTI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월 중 각각 5.9%와 6.1% 상승하고, 2월 초 현재(2월 13일 기준) 2.6%와 1.8% 추가 상승

## 02 주요국 산업 동향

## (1) 중국

- 지난해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6.8%로 증가세 확대
- 지난해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8%로 증가세 소폭 확대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7%

##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상반기	연간	상반기	연간	10월	11월	12월
공업 전체		3.4	3.6	3.8	4.6	4.6	6.6	6.8
섬유	방직	-2.5	-6.6	-5.0	-4.8	-5.3	-3.4	-3.5
	화학섬유	0.5	-1.0	3.9	10.3	15.5	23.2	30.2
화학	에틸렌	1.4	-1.0	3.8	6.0	5.6	4.8	0.1
	플라스틱원료	1.0	1.5	3.7	6.3	9.6	8.1	8.2
	플라스틱제품	-3.2	-4.3	-0.7	3.0	3.6	2.3	2.8
철강	선철	-4.7	-0.8	2.7	0.7	-2.8	-4.8	-11.8
	조강	-6.5	-2.1	1.3	0.0	-1.8	0.4	-14.9
	강재	-4.6	-0.8	4.4	5.2	3.0	4.2	1.5
비철금속		1.0	4.3	8.0	7.1	8.2	7.1	7.3
기계	금속절삭기계	-7.3	-13.1	-2.9	6.4	23.3	21.3	13.5
	소형 트랙터	-17.3	-11.5	24.7	13.4	-7.7	-14.3	0.0
	대기오염방지설비	0.7	4.3	50.2	22.0	19.5	17.7	-19.6
	발전설비	9.4	17.3	28.9	28.5	9.2	57.8	23.3
자동차		-2.1	3.4	6.1	9.3	8.5	23.6	24.5
조선		-11.1	-4.5	1.3	1.6	22.0	3.5	-2.6
전자	세탁기	-4.1	4.6	20.5	19.3	14.5	13.4	11.9
	냉장고	-6.2	-3.6	13.3	14.5	20.3	20.4	14.6
	에어컨	1.1	1.8	16.6	13.5	-0.5	12.8	26.9
	컬러TV	5.8	6.4	5.1	-1.3	-14.8	-11.6	-2.1
	컴퓨터	-4.4	-8.1	-25.7	-17.6	-16.8	-2.3	-5.9
	반도체	-6.3	-11.6	-6.1	6.9	34.5	27.9	34.0
	휴대폰	-2.7	-6.2	-3.1	6.9	2.6	21.6	29.6
서비스	화물운수	-2.2	-3.1	6.8	8.2	11.7	13.6	8.3
	여객운수	-37.2	-37.2	56.3	66.5	99.1	122.5	104.8
	통신 <sup>3)</sup>	22.7	21.3	17.1	16.8	16.8	17.2	18.6
	소매업	0.1	0.5	6.8	5.8	6.5	8.0	4.8
	음식숙박업	-7.7	-6.3	21.4	20.4	17.1	25.8	30.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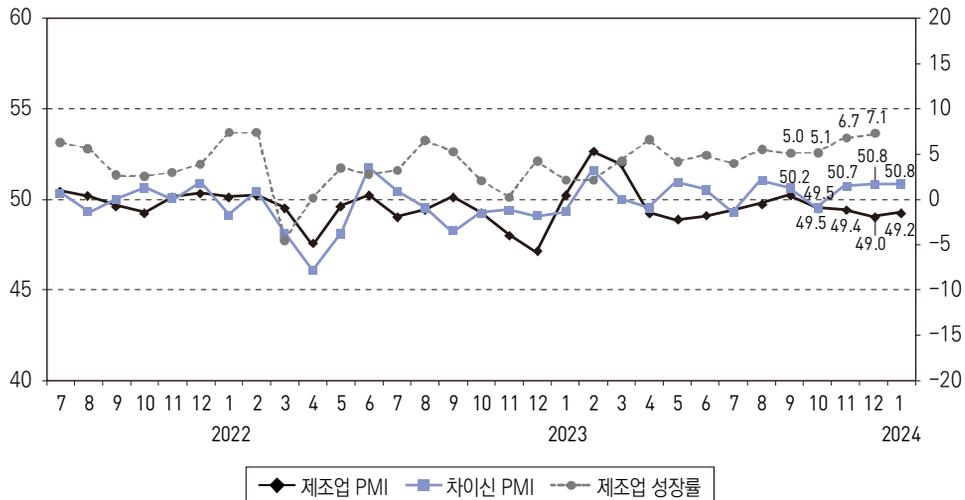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7.1%
- 11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여 국유 기업은 전년동기비 7.3%, 민영기업은 5.4%, 주식제기업은 7.2% 수준
- 12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수출 확대로 자동차 업종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철강 등은 부진이 지속되고 서비스업은 소비 증가세 유지되어 2023년 공업 생산량은 4.6% 증가
  - 섬유업종은 방직(-3.5%)은 감소했으나 화학섬유(30.2%)는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화학업종은 플라스틱원료(8.2%), 플라스틱제품(2.8%), 에틸렌(0.1%)이 모두 증가
  - 철강은 강재(1.5%)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조강(-14.9%)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전방업종의 수요 증가세 둔화와 기저효과로 선철(-11.8%)은 4개월 연속 감소세 확대
  -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비 생산량이 7.3% 증가하며 증가세 유지
  - 기계업종은 발전설비(23.3%)와 금속절삭기계(13.5%)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대기오염방지설비(-19.6%)는 대폭 감소로 전환되고 소형트랙터(0.0%)는 전년 수준 유지
  - 자동차는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확대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생산량이 24.5%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 조선업은 선박 수주 인도가 완료되며 전년 대비 생산량이 2.6% 감소
  - 전자업종에서 수요 확대로 반도체(34.0%)와 휴대폰(29.6%)이 증가세가 지속 확대되었고 가전인 에어컨(26.9%), 냉장고(14.6%), 세탁기(11.9%)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컬러TV(-2.1%)와 컴퓨터(-5.9%)는 감소세 지속
- 서비스업은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지속
  -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작년 코로나 통제의 기저효과로 여객운수(104.8%)의 세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화물운수도 8.3%로 증가세 유지
  - 통신은 18.6%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며 음식숙박업(30.0%)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소매업(4.8%)도 증가세 유지

□ 올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 상승, 민간치는 전월 수준 유지

- 올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2로 4개월 연속 기준치(50) 하회
  -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51.3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49.0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7.6
  - 종업원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7.6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50.8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기준치(50)를 유지했지만,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기준치(50) 하회 지속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한 50.4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48.9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7.2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1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50.8로 3개월 연속 기준치(50) 상회
  - 차이신 PMI는 민간 소비재를 중심으로 생산 증가와 주문이 유지되며 전월 수준인 50.8로 기준치(50) 상회 유지
  - 중국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며 신규 생산 증가는 안정적이고 신규 주문도 증가하였고 7개월 만에 신규 수출 주문지수가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약한 수준
  - 고용지수는 제조기업은 생산 및 판매 증가에도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과 효율성 개선으로 업종 전반에 걸쳐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고용 감소세는 둔화
  -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하고 원자재 가격도 소폭 상승하여 투입비용 증가세가 미미함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압력이 약하고 시장 경쟁으로 판매가격도 하락
  - 신규 주문 증가세가 지속되어 기업들이 원자재 재고와 완제품 재고를 늘렸으며, 공급업체 물류 공급 역량을 개선하며 배송시간이 다시 감소하였고 원자재 배송지수 상승
  -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가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시장 낙관론이 개선되었으나 경제주체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적 지원을 기대

## (2) 미국

### □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6% 증가

-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은 7개월간의 감소세에서 탈피
  - 전월비는 전월 수준으로 0.8% 감소하였으며 4개월간 감소세 지속
- 반도체·전자부품, 컴퓨터·주변기기, 통신기기, 항공우주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
  - 반도체·전자부품은 전년동월비(20.2%)와 전월비(6.2%)가 가장 크게 증가
  -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동월비 19.0% 증가하며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세
  - 통신기기는 12.7%, 항공우주는 10.4% 증가

- 이 외에도 정유(8.1%), 화학(5.1%), 1차금속(4.4%), 자동차·부품(4.2%)이 증가
- 컴퓨터·주변기기, 통신기기, 항공우주, 자동차·부품 등 다수 업종에서 장기간 증가세 유지
  - 컴퓨터·주변기기와 통신기기는 각각 24개월간 증가하며 가장 장기간 증가세를 기록
  - 자동차·부품은 19개월간, 제지는 17개월간, 플라스틱·고무가 14개월간, 화학이 12개월간, 식품과 기계가 각각 10개월간 증가세 기록
  - 이 외에도 반도체·전자부품(9개월), 정유(7개월)에서 증가세 지속
- 반면 기계, 가공금속, 플라스틱·고무는 감소
  - 기계는 제조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3.5%)하며 10개월간 감소세
  - 가공금속은 2.2% 감소하며 6개월간 감소세
  - 플라스틱·고무는 0.7% 감소하며 가장 장기간(14개월간) 감소세 지속

###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제조업	2.9	7.6	-0.2	-0.5	-0.9	-0.4	-0.8	1.6
식품	1.8	-1.5	-0.2	-1.4	-2.9	-1.5	-2.1	0.1
제지	-1.7	-6.6	-8.5	-9.9	-6.5	-1.2	-3.4	0.5
정유	1.2	1.0	-1.3	0.3	1.5	3.7	1.4	8.1
화학	2.2	1.4	1.0	1.5	1.1	1.8	0.3	5.1
플라스틱·고무	2.8	-4.2	-4.1	-4.5	-5.0	-3.2	-3.4	-0.7
1차금속	-1.2	-0.6	-2.2	-0.5	-1.0	1.5	2.3	4.4
가공금속	3.5	-0.6	0.1	0.4	-1.1	-1.9	-1.8	-2.2
기계	6.8	-2.6	0.4	-2.4	-3.6	-5.0	-5.3	-3.5
컴퓨터·주변기기	15.2	13.9	11.6	13.0	13.6	16.8	16.1	19.0
통신기기	11.4	7.3	6.2	6.0	6.2	10.3	9.4	12.7
반도체·전자부품	-2.2	7.5	-3.8	6.3	11.0	16.4	15.0	20.2
자동차·부품	7.8	5.3	5.3	8.8	7.0	0.3	4.4	4.2
항공우주	6.5	7.6	8.0	6.4	7.0	8.8	9.2	10.4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 (3) 일본

□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0% 감소

- 1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0% 감소
- 다수의 업종에서 장기간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세 지속
  - 생산기계는 연간 전년비 10.0%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비 11.3% 감소하며 전월에 이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월비는 10.3% 증가
  - 요업·토석제품(-3.5%)은 24개월,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8%)은 23개월, 펄프·종이·가공품(-5.0%)은 16개월, 기타 제조업(-3.2%)은 15개월간 감소세

##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제조업	-0.14	-1.1	-1.3	1.1	-3.6	-0.5	-1.4	-1.0
철강·비철금속	-4.55	-2.7	-5.1	-1.8	-1.3	-2.6	-4.1	-2.0
금속제품	-0.51	-3.5	-1.6	-2.8	-6.4	-3.4	-5.8	-3.5
생산기계	10.15	-10.0	-3.7	-3.0	-18.6	-13.4	-13.4	-11.3
일반용·업무용기계	3.67	-2.5	-2.0	0.2	-7.4	-0.7	-4.3	5.9
전자부품·기기	-5.88	-9.2	-16.9	-11.0	-9.5	1.1	0.8	1.3
전기·정보통신기기	-0.86	1.6	5.6	6.9	-2.9	-2.9	-4.9	-3.8
수송기기	-0.79	14.4	10.5	22.2	11.6	14.4	13.2	11.7
요업·토석제품	-4.57	-5.0	-7.4	-5.2	-4.6	-2.7	-3.1	-3.5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3.81	-6.4	-7.5	-6.9	-7.6	-3.7	-5.3	-2.8
석탄·석유제품	6.31	-4.2	-0.5	-5.8	-4.8	-6.1	-10.1	-3.0
플라스틱제품	-2.03	-2.0	-4.9	-2.1	-3.1	2.2	1.2	1.3
펄프·종이·가공품	-1.04	-5.6	-4.9	-6.1	-6.3	-5.2	-5.6	-5.0
식품·담배	-0.69	-	-0.5	-0.5	-	-	-	-3.7
기타 제조업	-0.91	-3.1	-2.8	-2.4	-4.6	-2.6	-2.6	-3.2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 이 밖에도 전기·정보통신기기 3.8%, 식품·담배가 3.7%, 금속제품이 3.5% 감소
- 석탄·석유제품은 3.0% 감소하였으나 전월비는 13.3%로 가장 크게 증가
- 수송기기가 전년동월비 장기간 가장 크게 제조업 생산을 견인
  - 수송기기는 11.7%로 12개월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연간 전년비 14.4% 증가하였으나 전월비는 8.6%로 가장 크게 감소
  - 이 밖에도 일반용·업무용기계는 5.9%(전월비 7.8%), 전자부품·기기는 1.3%(전월비 -3.2%), 플라스틱제품은 1.3%(전월비 -7.4%) 증가

#### (4) 유로존<sup>1)</sup>

##### □ 올 2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5% 상승

- 지난해 12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은 조선 및 화학의 생산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1.5% 증가
  - 조선의 경우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11.2%)과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4.5%)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비 6.2% 증가
  - 화학은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5.2%)과 기초화학, 비료 질소화합물, 플라스틱(4.4%)을 중심으로 3.0% 증가
  - 반면, 전자부품 및 정유의 경우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각각 6.9%, 5.0% 감소
- 지난해 4분기 유로존 제조업은 전자부품 및 기계의 부진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비 4.2% 감소
  - 기계의 경우 가공 공작기계 및 특수목적용 기계가 증가했으나, 농업 및 임업용 기계와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가 감소하며 4.3% 감소
-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전(全) 부문에서 감소하며 전년 대비 2.1% 감소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3	3/4	4/4	10월	11월	12월
제조업 전체	4.0	-2.1	-4.6	-4.2	-7.1	-6.1	1.5
식음료	0.5	-0.6	-0.7	-0.5	-0.9	-2.1	1.7
섬유	-2.4	-6.8	-5.8	-3.2	-4.7	-5.0	1.2
정유	3.6	-2.3	-1.1	-0.9	3.1	-0.3	-5.0
화학	-7.0	-7.4	-6.0	1.5	0.3	1.3	3.0
고무·플라스틱	-2.3	-3.9	-3.4	-2.4	-2.7	-3.4	-0.8
1차금속	-4.4	-3.8	-3.2	-1.9	-2.2	-3.9	1.2
조립금속	-0.3	-2.3	-2.0	-3.2	-4.1	-3.9	-1.2
기계	4.4	-1.5	-3.3	-5.3	-6.3	-5.3	-4.3
통신기기	2.2	-0.7	-2.8	-1.5	-3.9	3.8	-4.7
전자부품	13.5	0.9	-1.3	-7.8	-4.9	-11.4	-6.9
자동차	3.7	10.8	5.2	1.9	4.8	-0.1	1.2
조선	1.5	2.8	3.6	1.9	-0.9	1.2	6.2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 II

# 국내 실물경제

### 01 국내 경기

□ 지난해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12월 전 산업 생산 0.3% 증가

- 지난해 4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 전체 성장률이 1.4%를 기록
  - 민간소비가 2분기 연속 증가(전기비 0.2%)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대폭 감소(-4.2%)한 반면, 설비투자가 증가(3.0%)하고, 수출(2.6%)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순수출 규모가 확대(33조 원 → 37조 원)되면서 성장에 일조
-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전월비 증가세가 큰 폭 둔화(전월비 0.6%)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증가(0.3%)에 그치면서 전월비 0.3% 증가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5%)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0.6%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운수·창고(2.5%) 등이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0.3%)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1.2%)와 비내구재(-0.7%), 준내구재(-0.3%) 판매의 동반 감소로 전월비 감소 전환(-0.8%)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2%)의 감소에도 기계류(8.9%) 증가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5.5%)
  - 동행종합지수가 수입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한 반면에,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 지수 등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5개월 만에 하락(전월비 -0.1%)한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금리차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상승세(0.4%)

국내 실물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2.6*	1.4*	0.9* (0.6*)	1.4* (0.6*)	2.2*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1*	1.8*	1.6* (-0.1*)	0.2* (0.3*)	1.0*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9*	0.5*	4.7* (0.5*)	-4.2* (-2.2*)	-3.8* (3.0*)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2.8*	1.4*	1.7* (-0.8*)	3.8* (2.1*)	-1.6* (-4.2*)	-	-	-	-
전산업생산지수	4.6	0.7	-0.5 (0.3)	0.8 (1.1)	1.6* (0.2*)	2.7 (1.1)	0.8 (-1.8)	2.8* (0.8*)	1.1* (0.3*)
광공업생산지수	1.4	-3.8	-7.6 (3.1)	-2.0 (1.9)	4.2* (1.4*)	3.0 (1.8)	0.8 (-3.9)	5.5* (3.6*)	6.2* (0.6*)
제조업생산지수	1.4	-3.9	-7.8 (3.3)	-2.1 (1.8)	4.4* (1.6*)	3.0 (1.9)	0.8 (-3.9)	5.6* (3.6*)	6.7* (0.6*)
서비스업생산지수	6.7	2.9	2.3 (-0.3)	1.9 (0.7)	1.1* (-0.3*)	2.1 (0.5)	0.9 (-0.8)	2.3* (0.0*)	0.2* (0.3*)
소매판매액지수	-0.3	-1.4	-0.2 (-0.3)	-2.8 (-2.6)	-2.4* (-0.5*)	-2.0 (0.1)	-4.4 (-0.8)	-0.4* (0.9*)	-2.2* (-0.8*)
설비투자지수	3.3	-5.5	-1.2 (1.3)	-10.6 (-3.5)	-9.2* (3.1*)	-5.6 (8.7)	-10.1 (-3.8)	-11.9* (-2.5*)	-5.9* (5.5*)
건설기성액	2.7	7.7	8.9 (-0.8)	10.5 (1.0)	1.3* (-2.0*)	11.3 (0.2)	3.5 (0.1)	2.2* (-3.3*)	-1.2* (-2.7*)
동행종합지수(2020=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8.2 100.9	109.8 99.5	110.2 100.2	110.0 99.4	110.1* 98.8*	110.0 99.2	110.1* 99.0*	110.2* 98.9*	110.1* 98.6*
선행종합지수(2020=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8.7 100.3	110.9 99.2	109.9 98.7	111.5 99.3	112.9* 99.9*	111.9 99.4	112.4* 99.7*	112.9* 99.9*	113.4* 100.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02 고용

□ 지난해 12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해 12월 전 산업은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상당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1.0% → 1.0%)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0.2%)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0.1% → -2.0%)한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소폭 확대(1.3% → 1.4%)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22년 5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세(1.5% → 3.4%)를 보이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0.3% → 0.3%)

###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산업	28,089	28,416	28,693	28,687	28,518	28,678	28,698	28,764	28,698	28,093
전년동기비	3.0	1.2	1.2	0.9	1.1	0.9	1.1	1.2	1.0	1.0
농림·어업	4.6	-0.8	-0.3	-1.3	-0.3	-1.1	-0.2	1.0	-0.1	-2.0
제조업	3.1	-0.9	-1.1	-1.3	-0.6	-1.5	-1.6	-1.7	-0.3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8	1.5	1.5	1.6	1.7	1.8	1.3	1.4
건설업	1.6	-0.4	-2.4	-0.1	1.8	0.0	1.7	0.6	1.5	3.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1.8	1.0	0.6	0.9	0.9	1.1	0.3	0.3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1.3	1.2	3.4	1.0	2.0	3.6	3.1	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9	2.3	2.8	2.2	1.3	2.4	2.0	1.8	1.2	0.8
실업률(계절조정, %)	2.9	2.7	2.6	2.6	2.9	2.4	2.6	2.5	2.8	3.3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3.0% → 3.5%)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1% → 3.0%), 정보통신업(5.4% → 8.8%)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6.8% → 3.5%)에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1.9% → -1.0%)도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증가율이 하락(1.2% → 0.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3%로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03 물가

□ 올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4% 상승, 전년동월비 2.8% 상승

- 올 1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0.8%)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1.4%)를 비롯해서 음식·숙박(0.2%),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3.2% → 2.8%)

####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5.1	3.6	3.3 (0.6)	3.1 (1.0)	3.4 (0.7)	3.4 (0.9)	3.7 (0.5)	3.8 (0.4)	3.3 (-0.5)	3.2 (0.0)	2.8 (0.4)
근원물가	4.1	4.0	4.3 (0.9)	3.7 (0.5)	3.3 (0.6)	3.7 (0.2)	3.7 (0.2)	3.5 (0.4)	3.2 (-0.1)	3.1 (0.2)	2.6 (0.3)

자료: 통계청.

주: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 04 국내 금융·외환

□ 올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 및 가계대출 소폭 확대, 2월 초(2월 1일~13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하락

- 올 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계절요인에 기인하여 전월비 증가 전환하면서 전체 기준 역시 증가 전환(2023년 12월 -5조 9,000억 원 → 2024년 1월 +6조 7,000억 원, 대기업 +5조 2,000억 원, 중소기업 +1조 5,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일시 상환된 대출이 재취급된 영향으로 인해 특히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비 상당폭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중소기업법인들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 전환
  - 회사채는 연초 기관들의 높은 투자수요에다 기업들이 선차환 목적 등으로 발행을 늘리면서 전월보다 상당폭 순발행하고, CP·단기사채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상당 규모 순발행한 데 이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역시 소폭 증가

###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2		2023					2024	2024년 1월 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은행 원화대출	104.8	13.4	77.4	7.9	8.1	7.3	-5.9	6.7	1,254.4
(대기업)	37.6	4.2	31.9	6.6	4.3	1.5	-2.0	5.2	253.0
(중소기업)	67.2	9.2	45.5	1.3	3.8	5.8	-3.9	1.5	1,001.4
<개인사업자>	19.7	2.1	7.5	-0.9	0.5	0.9	-1.0	-0.7	449.6
회사채순발행	-5.9	2.3	-0.9	3.2	-2.3	-0.9	0.3	4.5	..
CP순발행	23.5	5.8	-1.0	6.9	2.5	-2.1	-4.6	6.6	62.0
주식발행	21.7	13.0	11.0	1.5	0.6	3.4	0.6	0.3	..
은행 가계대출	-2.6	-0.5	36.9	-4.7	6.7	5.4	3.1	3.4	1,098.4
(주택담보대출)	20.0	2.2	51.6	0.0	5.7	5.7	5.1	4.9	855.3
(기타대출)	-22.9	-2.6	-14.5	-4.6	1.0	-0.4	-2.0	-1.5	241.9

자료: 한국은행.

- 1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 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든 반면에,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2023년 12월 +3조 1,000억 원 → 2024년 1월 +3조 4,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증가 규모가 축소된 반면에, 기타대출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에도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감소 규모가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초 미 국채금리 상승과 홍해·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약보합세(2월 1일 3.267% → 2월 13일 3.353%, +0.09%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1월 중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중국 위안화 약세, 국내 증시 부진, 홍해발 정정 불안,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상승세를 보인 이후, 글로벌 달러화의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하락 전환(2월 1일 1,331.8원 → 2월 13일 1,328.1원, -3.7원)

###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2024	
		3/4	4/4	1/4	2/4	3/4	12월	1월	2월 13일
국고채(3년)	1.80	4.19	3.72	3.27	3.66	3.88	3.15	3.26	3.35
회사채(3년, AA-)	2.42	5.28	5.23	4.07	4.47	4.64	3.90	4.00	4.07
CD(91일)	1.29	3.24	3.98	3.59	3.75	3.83	3.83	3.68	3.67
CP(91일)	1.56	3.30	5.28	4.01	4.02	4.08	4.32	4.28	4.28
원/달러	1,188.8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288.0	1,334.6	1,328.1
원/100엔	1,030.2	993.3	953.2	981.4	907.0	901.3	912.7	901.9	888.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기말 종가 기준.

## 05 수출입

□ 올 1월 수출 18.0% 증가, 수입 7.8% 감소, 무역수지 3억 달러 흑자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0% 증가한 547억 달러, 수입이 7.8% 감소한 544억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ICT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도 CIS를 제외하고 미국·중국·일본·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상당폭 감소(-16.3%)하고, 비에너지 수입이 4.7%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82.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3%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도 9.6%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6.0% 증가한 약 74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6,836 (6.1)	6,324 (-7.5)	1,558 (-12.0)	1,571 (-9.7)	1,682 (5.8)	547 (-4.4)	550 (4.9)	556 (7.4)	576 (5.0)	547 (18.0)
수입	7,314 (18.9)	6,426 (-12.1)	1,593 (-13.2)	1,507 (-21.6)	1,586 (-10.7)	510 (-16.4)	534 (-9.7)	520 (-11.6)	532 (-10.8)	544 (-7.8)
무역수지	-478	-102	-35	64	96	37	16	36	45	3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2024년 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Ⅲ

## 주요 산업별 동향

### 01 제조업

#### (1) 총괄

□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6.7% 및 전월비 0.6% 증가

- 제조업 생산이 의료정밀광학(-14.3%)과 기계장비(-7.0%), 전자부품(-8.8%), 섬유제품(-4.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53.3%)를 비롯해 1차금속(6.6%), 기타운송장비(0.4%) 등에서 증가하면서 6.7% 증가(20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5.6%)와 중공업(9.0%)에서 증가세가 2개월 연속 확대된 반면, 경공업(-7.0%)에서는 감소폭이 전월보다 더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 기타운송장비(-7.9%), 전자부품(-7.5%), 화학제품(-5.7%), 섬유제품(-1.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8.5%)와 기계장비(6.1%), 자동차(4.7%), 1차금속(0.8%)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6%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3.5)는 전자부품과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2.7% 상승(3개월 연속 상승세)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7.7%로 전월 대비 8.6%포인트나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4분기 중 재고 증가폭(8.3% → 0.4%,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축소된 반면,

###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2	2023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9.7	105.5	104.6	106.2	111.6	106.6	112.7	115.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3.8	-7.6	-2.0	4.2	0.8	5.5	6.2	0.6
제조업(원지수)	9,569.5	109.9	105.6	105.2	106.5	111.8	107.3	113.1	115.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3.9	-7.8	-2.1	4.4	0.8	5.6	6.7	0.6
섬유	113.4	-3.5	-7.1	-9.1	-6.9	-4.7	-6.0	-3.1	-4.9	-1.9
화학	854.2	-9.9	-10.6	-16.1	-3.1	0.8	-0.5	3.2	-0.3	-5.7
철강	496.6	-8.5	2.3	-2.6	3.4	18.6	26.7	18.0	11.8	1.5
반도체	2,023.8	7.6	-5.3	-18.6	4.7	35.6	13.0	42.8	53.3	8.5
컴퓨터·주변장치	32.4	11.0	-12.5	-14.7	-17.2	-18.2	7.6	-26.6	-33.3	-5.4
통신·방송장비	171.0	-5.1	-4.8	-12.6	-10.2	-11.8	-22.5	-5.3	-1.8	-34.7
의료·정밀·광학	217.2	6.6	-11.9	-13.9	-14.6	-14.3	-13.2	-15.2	-14.3	6.5
기계·장비	737.3	1.1	-7.8	-6.5	-12.7	-11.8	-15.2	-14.2	-7.0	6.1
자동차	987.5	9.1	9.7	15.4	4.7	-0.3	2.5	-2.4	-0.8	4.7
조선	66.0	20.7	7.2	4.6	9.3	-2.0	-4.1	3.2	-5.1	-8.9
- 중공업	-	1.5	-3.6	-7.7	-1.5	6.0	1.7	7.1	9.0	1.2
- 경공업	-	0.4	-6.2	-8.3	-5.8	-4.7	-4.2	-3.2	-7.0	-2.9
- 제조업ICT	-	2.2	-8.5	-19.1	-1.4	22.2	6.6	26.2	35.6	3.1

자료: 통계청(\*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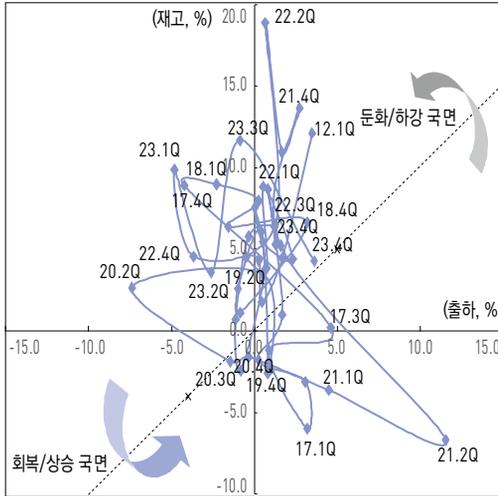
출하가 전분기와 달리 증가(-1.9% → 4.5%)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2개월 만에 다시 하락

□ 올 1월 수출, ICT(반도체·컴퓨터 등)·장비(자동차·선박 등)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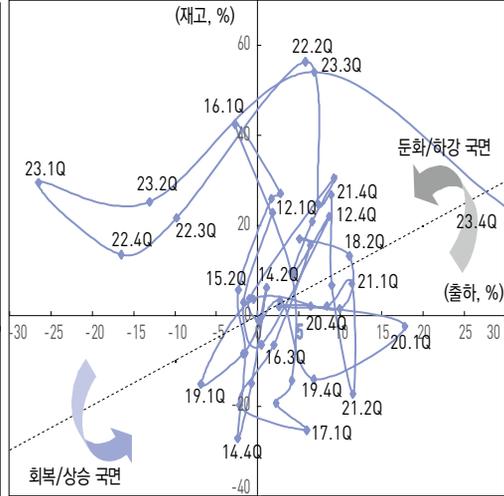
- ICT 품목에서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반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컴퓨터 수출이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고, 장비 관련 품목도 자동차(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를 비롯해서 선박(6개월 연속)과 기계(10개월 연속) 등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유지(12월 5.0% → 1월 18.0%)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4분기)



자료: 통계청.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4분기)



자료: 통계청.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동차	16.4	31.1	48.9	17.1	19.7	9.4	19.7	21.5	17.9	24.8
자동차부품	2.4	-1.5	1.0	0.4	-3.7	-3.5	-3.8	3.8	-10.8	10.8
선박류	-20.9	20.1	21.6	-5.1	59.0	14.4	101.8	31.6	47.2	76.0
일반기계	2.0	4.6	5.6	6.7	8.6	9.9	10.3	13.8	2.1	14.5
철강	5.7	-8.5	-5.7	-5.5	-5.9	7.3	-0.9	-11.1	-5.2	2.0
석유화학	-1.4	-15.9	-24.3	-13.8	2.1	-5.0	-3.1	6.0	3.8	4.0
석유제품	64.9	-17.2	-34.8	-27.4	1.8	-6.5	16.2	-6.1	-3.7	11.8
섬유	-4.0	-11.2	-11.2	-11.8	-6.2	-8.5	-9.0	0.8	-10.0	8.5
가전	-7.4	-1.0	-7.6	7.0	7.5	7.3	5.7	14.1	2.9	14.2
무선통신기기	-10.4	-10.2	-20.8	-8.4	0.4	-3.6	-4.5	8.3	-3.0	-14.2
컴퓨터	-4.7	-53.3	-61.6	-48.1	-31.7	-53.9	-30.6	-29.4	-34.5	37.2
반도체	1.0	-23.7	-34.8	-22.6	10.4	-13.6	-3.1	12.9	21.7	56.2
디스플레이	-1.1	-12.1	-16.5	1.2	10.8	4.0	15.5	5.9	10.9	2.1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2024년 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2) 자동차

□ 지난해 12월 내수는 재작년 말 내수 판매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감소

- 올 1월 수출은 전기차 수출 증가와 해외 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21.2% 증가
  - 완성차는 국산 친환경차 판매 호조와 시장별 수출 다각화 전략 등으로 24.8% 증가하며 19개월 연속 증가 기록
  -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국 현지 공장 생산 모델 확대에 해당 지역으로 수출이 9.7% 증가하며, 10.8% 증가
- 지난해 12월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과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1.7% 감소
  -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과 2022년 말 대기수요 실현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2.5% 감소

###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1	9.7	15.4	4.7	-0.3	2.5	-2.4	-0.8	-
	생산(전기비)	-	-	5.0	-5.4	-1.3	3.0	-3.7	4.7	-
	출하	8.0	10.3	17.7	3.7	0.4	1.5	1.8	-2.2	-
	재고	23.7	6.3	8.5	22.5	6.3	20.4	4.7	6.3	-
	가동률	5.6	2.0	4.4	-3.5	-4.6	-3.2	-5.8	-4.7	-
	내수판매동향	-2.2	3.0	7.3	-3.7	-5.2	-4.7	1.2	-11.7	-
교역 동향	수출	11.8	21.3	33.8	12.2	13.5	13.3	16.9	10.2	21.2
	수입	8.0	2.9	23.3	-15.4	-11.8	-8.0	-22.6	-1.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자동차등록자료".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신차 효과 등으로 전월비 10.0% 증가하였지만, 2022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8.2% 감소
- 12월 생산은 내연기관차 부품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비 감소
  - 건조한 완성차 수요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 부품 수요 감소에 따른 관련 부품 생산 감소로 생산과 출하가 각각 0.8%와 2.2% 감소
  - SUV 차량과 하이브리드 승용차 생산 증가로 전월비 생산은 4.7% 증가

### (3) 조선

#### □ 고가의 해양플랜트가 인도되며 수출 6개월 연속 증가

- 지난해 12월은 조선사의 투자 확대로 생산능력이 증가하며 가동률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였고 생산, 출하는 전년동월의 기저효과로 감소
  - 2023년 건조량은 2022년 대비 17.8% 증가한 921만 CGT를 기록했으며, 향후 건조일감인 수주잔량은 3,869만 CGT를 확보하여 충분한 수주량 확보
  - 2023년 수주는 풍부한 수주잔량을 바탕으로 주요 조선사의 선별수주가 지속되며 2022년 대비 39.2% 감소한 1,011만 CGT를 수주하여 2,589만 CGT를 수주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 신조선가지수는 2009년 이후 최고치인 181.3을 기록하였고 선가의 피크아웃 우려에도 최근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해상운임이 급등하며 선가는 상승추세 유지
    -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1월 5일) 180.4 → (2월 2일) 181.3
    - \* 누적 수주량: (2023년 1월) 67만 CGT → (2024년 1월) 97만 CGT
    - \* 벌크선 운임지수(BDI): (1월 5일) 2,110 → (2월 2일) 1,407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1월 5일) 1,897 → (2월 2일) 2,218
- 올 1월 수출은 76.0% 증가하였는데,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가 인도되어 6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전년동월의 기저효과에도 고선가에 수주된 대량의 LNG운반선, 컨테이너선과 함께 고가의 드릴십이 인도되며 수출 증가 시현

##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0.7	7.2	4.6	9.3	-2.0	-4.1	3.2	-5.1	-
	생산(전기비)	-	-	-3.4	3.2	-1.9	-6.7	13.2	-8.9	-
	출하	14.0	-3.3	-6.6	1.1	-8.1	-9.8	-3.9	-10.8	-
	가동률	23.1	0.3	1.1	0.5	-13.6	-13.2	-11.3	-16.1	-
교역 동향	수출	-20.9	20.1	21.6	-5.1	59.0	101.8	31.6	47.2	76.0
	수입	-13.2	-21.1	-15.7	-19.3	-9.4	-2.4	-33.2	19.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 지난해 12월 수입은 19.0% 증가하였는데, 선박용 엔진과 부품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선박이 수입되며 수입 증가를 견인
  - 일본과 브라질에서 화물선이 수입되었고, 싱가포르에서 유조선이 수입되며 선박 수입이 45.5% 증가
  - 한편, 선박생산 감소에 따라 선박용 엔진 및 부품의 수입은 38.5% 감소하였고 선박용 부품 수입도 1.3% 감소

### (4) 일반기계

□ 생산 부진세 지속, 수출은 역대 2위 규모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 지난해 12월 생산은 일반기계 수출이 역대 2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7.0% 감소
  - 내수판매, 설비투자 감소세 영향으로 9개월 연속 생산 부진했으나, 감소폭은 둔화되는 추세
  -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0월) -11.4 → (11월) -11.1 → (12월) -4.4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1	-7.8	-6.5	-12.7	-11.8	-15.2	-14.2	-7.0	-
	생산(전기비)	-	-	-4.5	-0.3	2.8	-10.8	9.6	6.1	-
	출하	0.3	-6.2	-3.5	-9.5	-10.1	-11.3	-11.8	-7.6	-
	재고	20.1	-16.3	11.1	0.1	-16.3	-5.9	-13.4	-16.3	-
	가동률	6.2	-2.5	3.4	-6.5	-14.0	-14.0	-13.3	-14.7	-
교역 동향	수출	2.0	4.6	5.6	6.7	8.6	10.3	13.8	2.1	14.5
	수입	0.7	-2.8	0.5	-8.5	-3.5	-0.7	-4.7	-6.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 \*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0월) -16.7 → (11월) -19.7 → (12월) -7.6
-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0월) 13.6 → (11월) 14.3 → (12월) 12.0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가 소폭 증가한 반면, 재고는 소폭 감소하며, 전월비 6.4%포인트 하락한 113.8% 기록
- \* 재고율(%): (2023년 10월) 133.4 → (11월) 120.2 → (12월) 113.8
- 가동률은 전방 산업의 경기 부진 장기화로 하락세(-14.7%) 지속
- 올 1월 수출은 대EU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 증가세 지속 및 대중국 수출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년동월비 14.5% 증가
  - 대미 수출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영향으로 공작기계 등 제조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80.6%) 유지
  - 중국 수출은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투자와 인프라 투자 증가로 산업 기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가세(+17.9%)로 전환
  - EU 수출은 에너지 위기 충격의 지속,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산업 수요가 둔화되면서 감소세(-24.1%) 지속
  - \* 1월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미국(12.7, +80.6%), EU(4.3, -24.1%), 중국(4.1, +17.9%), 중동(1.9, +23.1%), 중남미(2.8, +40.8%)

- 지난해 12월 수입은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6.0% 증가율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주요 품목별로는 식품 가공·포장기계(+24.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22.7%), 건설 광산기계(+10.1%)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23.5%), 섬유 및 화학기계(-22.3%), 농기계(-12.3%) 등은 감소

## (5) 철강

### □ 신흥국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세 전환

- 지난해 12월 생산은 자동차 및 조선 산업에서의 판재류 수요 증가와 전년도 생산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1.8% 증가
  - 전월비 생산은 봉형강류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판재류 수요 확대 영향으로 1.5% 소폭 상승하며 증가세 전환
  - 품목별로는 미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수출 확대 영향으로 열연강판 생산이 11.1% 확대되었으며, 중후판, 용융아연도강판의 생산도 전년동월비 10% 이상 증가하며 총생산 증가를 견인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6.7%), 봉형강류(-8.8%), H형강(17.0%), 철근(-16.2%), 선재(-0.8%), 판재류(18.0%), 열연강판(11.1%), 중후판(11.8%), 용융아연도강판(32.8%), STS핫코일(275.8%), STS냉연강판(110.9%), 전기강판(2.4%), 강관(1.6%)
- 올 1월 수출은 인도,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에서의 경기 개선 및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2.0% 증가
  - 1월 철강재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7.5%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국 내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
  - 지역별로는 제조업 및 인프라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는 인도,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3년 1월) 1,236 → (2024년 1월) 1,144(-7.5%)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5	2.3	-2.6	3.4	18.6	26.7	18.0	11.8	-
	생산(전기비)	-	-	4.4	-4.8	-2.4	5.2	-6.3	1.5	-
	출하	-7.0	2.8	1.1	5.8	10.8	12.0	16.0	4.6	-
	재고	-9.8	8.3	-4.2	1.1	8.3	8.0	2.2	8.3	-
	가동률	-8.7	2.4	-2.5	3.7	19.3	27.6	18.7	12.2	-
교역 동향	수출	5.7	-8.5	-5.7	-5.5	-5.9	-0.9	-11.1	-5.2	2.0
	수입	2.0	-9.6	-13.7	-10.5	-4.3	-0.3	-7.3	-5.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일본(7.5%), 인도(35.2%), 중남미(26.8%), 중동(44.5%)

● 지난해 12월 수입은 건설용 봉형강류의 내수 부진과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5.1% 감소

- 지난해 12월 철강재 수입단가는 톤당 1,025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년동월의 높은 수입단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단가 감소폭은 8.0%로 확대

- H형강, 철근 등 주요 건설용 철강재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 등의 내수 회복으로 냉연강판, 열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판재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물량기준 수입은 증가세 전환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1.9%), 일본(-16.1), 베트남(-7.5%), 미국(-4.4%), 인도(265.3%), 러시아(97.9%), 대만(-38.8%), 남아프리카공화국(95.1), 말레이시아(-3.0%)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냉연강판(32.1%), 중후판(21.7%), 열연강판(-13.1%), H형강(20.9%), 철근(-47.8%), 선재(-45.8%), 아연도강판(31.0%)

## (6) 정유

□ 올 1월 수출은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 확대로 증가

- 지난해 12월 생산은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 정유사의 가동률 상향조정으로 전년동월비 4.9% 증가
  - 내수는 항공유를 제외한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요 부진으로 6.3% 감소
    - \* 품목별 증가율(물량기준): 아스팔트(36.2%), 항공유(22.2%), 나프타(0.5%), 윤활유(-9.7%), 경유(-10.9%), LPG(-14.9%), 휘발유(-15.3%), 병커C유(-23.3%)
  - 수출물량은 휘발유 및 항공유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0.5% 확대
    - \* 품목별 증가율(물량기준): 휘발유(37.4%), 경유(-7.0%), 항공유(28.6%), 나프타(-6.5%), 윤활유(38.7%), LPG(-39.3%), 아스팔트(-46.0%), 병커C유(-83.7%)
- 올 1월 수출액은 수출 물량 확대로 전년동월비 11.8% 증가

###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0.6	1.7	-8.4	4.5	5.5	3.4	4.9	-
	생산(전기비)	-	-	2.2	-7.6	10.4	5.5	-1.8	-3.6	-
	출하	2.3	2.0	5.1	-8.9	8.4	5.8	10.0	9.4	-
	재고	-2.5	6.8	-11.9	-4.6	6.8	6.8	-1.0	6.8	-
	가동률	1.9	-0.7	1.6	-8.6	4.2	5.4	2.9	4.5	-
	내수판매동향	1.1	-2.2	-2.6	-2.5	0.1	3.9	3.7	-6.3	-
교역 동향	수출	64.9	-17.2	-34.8	-27.4	1.8	16.2	-6.1	-3.7	11.8
	수입	10.9	-13.3	-28.9	-15.7	8.9	20.9	10.5	-4.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국제유가는 전년동월비 2.0% 하락한 반면 수출단가는 정제마진 약세로 전년동월비 8.6%나 하락
- 수출물량은 여행 수요 회복세 지속에 따른 휘발유 및 항공유의 견조한 수요 증가로 약 21.5% 확대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3년 1월) 80.4 → (2024년 1월) 78.9(-2.0%)
  - \*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3년 1월) 840 → (2024년 1월) 773(-7.9%)
  -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3년 1월) 42.2 → (2024년 1월) 47.2(11.8%)
- 지역별로는 일본 및 대양주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단가 및 물량의 동반 축소로 감소
  -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일본(72.6), 아세안(-17.3), 중국(-19.1)

## (7) 석유화학

- 국내 석유화학 생산량은 소폭 감소한 반면, 아세안 및 인도향 수출량이 증가하며 수출 증가 견인
-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은 전년동월비 소폭 감소(-0.3%)한 반면,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1.8% 증가
  - 주요 생산시설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3.0% 하락하였으나, 재고량은 4.0% 감소
  - 11월 중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40달러로, 3분기 평균(267달러) 수준 대비 하회하며 NCC 업체들의 수익성 회복은 더딘 모습
  - 2024년 1월 이후 중국발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 대비 합섬원료 제품군과 아로마틱 제품군 가격 상승 뚜렷
    - \* 합섬원료(EG, TPA), 아로마틱 기초제품(PX) 가격 상승, 올레핀 기초제품 관련 유도품 제품 가격은 하락
- 올 1월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이 혼조세,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4.0% 증가
  - 동월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전년비 각각 2.0%, 2.6% 하락

##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9	-10.6	-16.1	-8.5	-6.4	-0.5	3.2	-0.3	-
	생산(전기비)	-	-	0.1	0.2	-0.6	-1.7	3.1	-5.7	-
	출하	-9.5	-5.6	-3.1	0.4	-12.2	-2.9	3.4	1.8	-
	재고	-3.9	-4.0	0.8	0.8	-4.0	-3.8	-2.9	-4.0	-
	가동률	-10.1	-10.1	-14.3	-3.9	-0.1	-10.3	-6.4	-3.0	-
교역 동향	수출	-15.2	-15.9	-24.2	-13.4	2.2	-3.1	6.0	3.8	4.0
	수입	-2.3	-1.4	-20.7	-16.4	-1.1	7.5	-4.8	-6.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당월.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3년 1월) 80.4 → (2024년 1월) 78.9(-2.0%)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3년 1월) 1,245 → (2024년 1월) 1,213(-2.6%)
- 인도 건설업황이 호조세를 유지하며 전자재용 화학제품 수출량 증가세 지속
-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전방산업 수요가 회복된 아세안(베트남)향 수출량 증가
- 8월부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섬유산업, 농업용 필름 등 전방 수요 부진으로 대중국 수출량은 감소
- \* 1월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인도(21.3%), 중국(-2.0%), 아세안(30.3%)

## (8) 섬유

□ 내수 위축으로 생산은 감소한 반면, 1월 수출은 증가 전환

- 지난해 12월 소비 둔화 및 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겨울 중의류 판매 부진 등 소매 판매가 감소세로 전환
  -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10월) -6.8% → (11월) 3.4% → (12월) -6.7%
  - \* 의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가율(전년동월비): (10월) 4.2% → (11월) 12.4% → (12월) -2.5%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2	-10.1	-12.8	-8.4	-10.3	-11.9	-9.4	-9.3	-
	생산(전기비)	-	-	-3.3	0.4	-1.5	-0.8	-3.4	-3.0	-
	출하	-5.7	-9.6	-12.0	-10.3	-9.3	-7.1	-7.5	-13.3	-
	재고	-0.1	-4.8	-2.5	-0.5	-4.8	-3.6	-4.8	-4.8	-
	가동률	5.3	-7.3	-9.4	-8.1	-6.2	-6.5	-5.4	-6.7	-
교역 동향	수출	-4.0	-11.2	-11.2	-11.8	-8.5	-9.0	0.8	-10.0	8.5
	수입	8.8	-5.2	-6.4	-7.7	-8.0	-5.4	-1.1	-9.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 12월 품목별 생산은 봉제 의복과 원사, 화학섬유가 두 자릿수 감소했으나, 편물은 감소폭이 크게 완화
  - 봉제의복 생산은 내수 패션 경기가 둔화되면서 12.1% 감소
  - 원사와 화학섬유는 국내 폴리에스테르 공장 가동 중단 이후 중국산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생산이 각각 14.7%, 27.4% 감소
  - 편물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의류 소비 확대에 따른 의류용 편물 수출 증가로 생산 감소세가 -1.8%로 크게 완화
    -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10월) -16.3% → (11월) -15.4% → (12월) -12.1%
    - \* 원사(전년동월비): (10월) -12.0% → (11월) -15.9% → (12월) -14.7%
    - \* 편물(전년동월비): (10월) -6.3% → (11월) -11.7% → (12월) -1.8%
    - \* 화학섬유(전년동월비): (10월) -31.9% → (11월) -28.9% → (12월) -27.4%
- 올 1월 수출은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 내 의복 판매 증가로 의류용 편직물 등의 소재 수출이 증가해 8.5% 증가세로 전환
  - 최대 의류 소비시장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둔화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라 의류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의류용 소재의 중국·아세안 수출이 증가

- \*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2023년 12월) 3.4% → (2024년 1월) 3.1%,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2023년 12월) 69.4 → (2024년 1월) 78.8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2023년 1월) 8.0(-28.0%) → (2024년 1월) 8.7(+8.5%)
- \* 1.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아세안) 2.2(+9.6%), (중국) 1.1(+70.5%), (미국) 0.9(+6.8%)

## (9) 가전

### □ 국내외 수요 증가로 수출과 생산 모두 증가

- 지난해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1.6% 증가, 전월비로는 2.5% 증가
  - 수출 호조 지속과 내수 감소세 둔화로 생산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
    - \* 12월 가전제품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비 3.6% 증가(불변지수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비 1.8% 감소)
  - 영상음향기기는 판매량 증가와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생산이 대폭 증가, 생활가전도 판매 호조에 따라 생산이 증가로 전환
  - 연초 수요에 대비한 가동률 상승으로 조명기기 재고가 증가했으나, 영상음향기기와 생활가전 재고 소진으로 전체 재고는 전년동월비 1.0% 감소
  - 가동률은 판매 호조와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2.2% 상승
- 올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2% 증가
  -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의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 1.1~25일 수출 증가율(% , 전년동월비): (미국) 20.4, (EU) 28.9, (아세안) 15.1
  - 고효율·친환경 제품, 인공지능(AI) 적용 제품 등 프리미엄 신제품 수요가 국내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지난해 12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0.2% 감소
  - 최대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월비 5.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베트남,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과 EU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전체 수입은 감소로 전환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1	-4.3	-15.6	10.8	10.8	6.5	14.3	11.6	-
	생산(전기비)	-	-	0.8	12.9	-5.0	-11.5	10.7	2.5	-
	출하	-0.6	-1.0	-14.2	14.2	9.8	1.6	5.8	24.2	-
	재고	-5.3	-0.3	-6.4	10.2	3.9	4.6	7.9	-1.0	-
	가동률	-9.6	-1.5	-11.8	13.2	12.4	8.9	16.0	12.2	-
교역 동향	수출	-7.4	-1.0	-7.6	7.0	7.5	5.7	14.1	2.9	14.2
	수입	-5.0	-1.9	-5.6	-8.6	5.5	4.3	12.4	-0.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음향기기(컴포넌트 품목) 수입 확대로 미국 수입이 전년동월비 75.9% 증가하면서 수입 감소폭이 다소 완화

(10) 무선통신기기

□ 점진적인 세계 스마트폰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연초 출하량의 본격 상승이 지연되며 1월 수출 큰 폭 감소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더딘 가운데, 2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출시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작용하면서 수출이 감소

- 신흥국 시장을 주 타깃으로 한 보급형 및 준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 역시 1분기 중에 출시 예정

\* 카날리시스(2023. 11)는 2024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전년비 4% 성장한 11억 7,410만 대 수준으로 전망

- \* 가트너(2024. 1)는 2024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4.5% 증가한 12억 6,830만 대 수준으로 예상
- 지난해 12월 생산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8% 감소하고 출하는 30.5%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가 21.1% 증가
  - 2021년 코로나19 특수 이후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도래하면서 수요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작용하여 생산과 수출 회복을 제약
  - 한편,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가트너(2024. 1)는 2024년 AI 스마트폰 출하량을 2억 4,000만 대가량으로 제시하고, 2027년 경에는 7억 7,800만 대 수준으로 전망
- 12월 수입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1.9% 감소
  - 스마트폰 완제품 수입은 전년동월비 9.2% 감소하고, 부품은 35.1% 증가
  - \* 미국 경쟁사 제품(아이폰)의 출시 효과가 소진됨과 동시에 국내 기업 신제품(갤럭시24)의 초도물량 생산을 위한 부품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
  - \* 무선중계기 수입은 전년동월비 23.9% 감소

###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1	-4.8	-12.6	-10.2	-11.8	-22.5	-5.3	-1.8	-
	생산(전기비)	-	-	-28.6	11.5	-2.7	0.0	14.8	-34.7	-
	출하	-2.1	-3.3	-5.5	-7.4	-9.7	-14.5	25.4	-30.5	-
	재고	5.8	21.1	27.7	27.0	21.1	-13.4	4.3	21.1	-
	가동률	-6.1	-8.3	-17.5	-15.2	-10.6	-23.0	-6.1	8.4	-
교역 동향	수출	-10.4	-10.2	-20.8	-8.4	0.4	-4.5	8.3	-3.0	-14.2
	수입	-7.2	-9.6	-25.1	-15.8	4.2	-10.4	42.8	-1.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4년 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11) 반도체

□ 반도체 수출, 3개월 연속 증가 및 증가세 확대

- 올 1월 수출액은 93억 7,4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56.2% 증가하여 역대 1월 증가율 중 최고를 기록
  - 지난해 11월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 메모리반도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 축적과 단가 하락으로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 기업들의 감산 노력으로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안정화되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생성형 AI 기술이 주목을 받으며 연구개발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면서 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확대
  - 1월 수출이 대폭 늘어났으나 러-우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완전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고 하기는 시기상조로 판단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6	-5.3	-18.6	4.7	35.6	13.0	42.8	53.3	-
	생산(전기비)	-	-	20.6	14.6	10.1	-12.7	13.2	8.5	-
	출하	0.5	4.8	-11.5	18.0	57.7	1.5	69.2	113.7	-
	재고	15.9	11.6	49.1	58.1	11.6	47.6	38.0	11.6	-
	가동률	-3.4	-16.4	-25.0	-4.3	12.1	-3.2	21.7	19.9	-
교역 동향	수출	1.0	-23.7	-34.8	-22.5	10.4	-3.1	12.9	21.8	56.2
	수입	21.8	-16.6	-16.8	-22.1	-16.4	-15.3	-24.2	-8.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 반도체 수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장기간 증가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최근 13개월 연속 감소 중
-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지수는 175.8로 전년동월비 대폭(53.3%) 증가하였고 전월비는 8.5% 증가하여 호조
  - 반도체 생산은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지난해 연말부터 큰 폭으로 증가
  -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12월 가동률은 19.9% 상승하였고 출하는 113.7%의 기록적 성장률을 달성
  - 재고는 11.6% 증가로 증가폭이 지속해서 축소

## (12) 디스플레이

### □ LCD 감산으로 인하여 지난해 생산 감소 지속

- 지난 한 해 디스플레이 생산은 LCD 설비 폐쇄로 인한 파급효과로 감소 지속
  - LCD 생산 축소로 인한 전용 소재부품 생산 감소로 생산은 전년 대비 20.5% 감소
  - 주력 품목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생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생산 감소가 소폭 이어질 전망
- 올 1월 패널 수출은 OLED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가격 상승 영향으로 2.1% 증가하였으며,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 주요 패널 기업의 생산 조정으로 인한 패널 가격 상승으로 LCD 수출은 57.1%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
  - 스마트폰 OLED 신제품 효과가 빠르게 소멸되면서 OLED 수출은 14.9% 큰 폭 감소를 기록
  - 베트남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패널 수요 위축세가 파급되면서 대아세안 수출이 22.8% 감소한 것이 OLED 전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
- IT용 OLED 적용 제품 확대로 수출 증대가 예상되나, 1분기 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4.7	-20.5	-20.8	-18.8	-7.3	-3.3	-9.9	-8.8	-
	생산(전기비)	-	-	3.4	-6.3	6.1	10.4	-3.8	-7.5	-
	출하	-17.5	-19.1	-20.1	-18.5	-4.6	7.4	-10.8	-9.1	-
	재고	-24.9	0.5	-39.9	-5.4	0.5	27.1	13.9	0.5	-
	가동률	-6.5	9.3	18.0	9.0	11.2	26.6	8.2	0.2	-
교역 동향	수출	-1.1	-12.1	-16.5	1.2	10.8	15.5	5.9	10.9	2.1
	수입	30.7	-4.9	-19.7	-0.8	38.5	63.3	37.3	17.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애플 아이패드용 OLED 생산으로 인하여 수출 증대가 나타날 것이나, 주요 품목인 스마트폰용 OLED에 비해 그 영향력은 제한적
- 수요 제품 확대에 의한 수출 증대는 2분기경부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지난해 12월 생산, 전년동월비 0.2% 증가

- 12월 생산은 0.2%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정보통신, 보건·사회복지 등이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서비스산업 내 비중이 큰 도·소매, 금융·보험업의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올해 가장 큰 3.7% 감소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의 부진에 따라 3.3% 감소

##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서비스 총지수	105.2	112.4	115.2	114.6	119.2	114.5	116.0	127.1
상승률	5.2	6.8	2.9	1.5	1.1	0.9	2.3	0.2
전기비	-	-	-	0.7	-0.3	-0.8	0.0	0.3
도·소매	5.3	2.6	-0.8	-2.7	-2.9	-3.6	-1.5	-3.7
운수·창고	4.2	17.7	10.4	8.6	7.4	6.3	6.0	9.7
숙박·음식점	1.9	16.9	0.5	-4.7	-3.7	-5.3	-3.4	-2.2
정보통신	12.2	1.8	-1.4	-1.7	1.4	-0.8	1.9	2.6
금융·보험	8.0	8.4	5.6	4.8	0.8	2.1	3.9	-3.0
부동산	2.3	7.9	2.1	2.4	-0.7	-0.9	0.5	-1.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8	2.0	2.4	2.4	2.6	2.9	3.8	1.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3	5.2	3.7	3.4	2.6	3.3	4.0	0.8
교육	1.5	1.2	1.0	1.4	1.2	1.0	1.8	0.7
보건·사회복지	5.1	7.2	4.6	5.1	4.1	5.6	4.2	2.6
예술·스포츠·여가	15.4	44.8	5.6	-1.9	2.0	1.5	5.8	-0.8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9	4.4	6.5	6.2	3.1	5.0	6.6	-1.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2.3	-4.7	-1.4	-1.0	-3.6	-2.3	-2.1	-6.4
지식서비스	6.0	4.7	2.9	2.8	1.9	2.2	3.2	0.4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생활용품(-7.4%),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5.6%) 등이 크게 감소
- 소매업도 물가 상승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12.8%), 음·식료품 소매업(-8.0%),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6.3%)의 감소세가 지속
- 운수·창고업은 항공 운송업(54.6%), 수상 운송업(52.6%)의 호조세로 인해 지난달에 이어 9.7%로 크게 증가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 도로 화물운송업과 소화물 전문 운송업이 각각 18.6%, 12.6% 크게 증가함에 따라 4.1% 증가
- 항공 운송업은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항공 여객운송업(58.5%)이 크게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국내여행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모든 업종의 실적 악화로 인해 2.2% 감소
  - 숙박업의 경우 호텔업 생산이 7.0% 증가하였으나, 여관업이 6.0%로 감소하며 숙박업 형태에 따라 양극화 현상 지속
  - 음식점업은 외국식 음식점업(9.0%)을 제외한 세부 업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음료점업은 커피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7.9% 증가하였으나, 주점업은 지난달에 이어 8.4%로 크게 감소
- 정보통신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실적 개선으로 2.6% 증가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2.4%)과 정보서비스업(4.8%)이 증가한 반면,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여전히 감소세 지속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보험 및 연금업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3.0% 감소
  - 보험 및 연금업은 연금 및 공제업, 보험업이 각각 30.8%, 14.5%로 크게 감소
  - 반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의 실적 호조로 12.0%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별로 생산 감소 및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지난달에 비해 소폭 증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건축 기술(8.5%),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6.1%)이 감소한 반면,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10.6%),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9.4%)은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 임대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지원업은 2.1% 증가하였으며, 임대업(부동산 제외)은 1.3%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2.6% 기록

- 증가폭의 감소세는 의원과 기타보건업의 실적 저하에 기인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각각 0.8%, 1.0% 감소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1% 소폭 증가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 11.5% 크게 감소

## (2) 고용

□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3만 9,000명(1.2%) 증가

- 1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업 등의 증가로 약 23만 9,000명 증가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9만 3,000명(3.5%) 증가하였으며, 그 뒤로 정보통신업이 8만 7,000명(8.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4만 7,000명(3.6%) 증가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매월 감소 추세
- 운수 및 창고업(2만 6,000명,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 3,000명, 4.8%), 숙박 및 음식점업(1만 7,000명, 0.7%)도 증가
  - 운수 및 창고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증가폭이 대체로 축소
- 교육서비스업과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각각 3만 5,000명 (-1.8%), 3만 2,000명(-5.8%), 1만 4,000명(-1.0%) 감소
  - 교육서비스업은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동산업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지식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증가하며 19만 3,000명(2.5%) 증가
- 민간 부문 취업자 수는 20만 4,000명 증가하였으며, 지난달부터 감소하는 추세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총취업자 수	19,173	19,752	20,138	20,267	28,518	20,314	20,277	19,968
증감률	1.6	3.0	2.0	1.8	1.5	2.0	1.3	1.2
전기비	-	-	-	-0.2	-0.4	0.4	-0.2	-1.5
도·소매	-4.3	-1.2	-1.1	-1.4	0.2	0.3	0.2	0.0
운수·창고	7.0	4.4	-0.7	-0.8	1.8	1.8	2.1	1.6
숙박·음식점	-2.1	4.0	5.2	4.8	1.1	2.3	0.3	0.7
정보통신	6.4	8.9	5.8	4.7	7.3	7.7	5.4	8.9
금융·보험	2.8	-3.3	1.1	0.0	0.9	1.4	1.2	0.1
부동산	2.7	4.0	-3.3	-3.8	-5.5	-4.9	-5.4	-5.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7	5.7	5.4	4.8	5.4	5.9	6.8	3.6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3.7	1.9	0.6	1.7	1.2	2.6	1.9	-1.0
공공행정·국방	2.8	6.1	2.0	1.4	2.6	2.7	2.1	3.0
교육	2.3	3.4	-0.3	0.1	-2.3	-2.3	-3.0	-1.8
보건·사회복지	8.5	7.1	5.3	4.8	3.4	3.7	3.0	3.5
예술·스포츠·여가	-5.8	3.2	6.2	3.8	5.6	6.1	5.9	4.8
협회·수리·개인서비스	-4.5	-1.4	0.9	1.5	-0.4	0.8	-1.5	-0.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5	-8.9	-4.9	2.1	-2.1	-5.4	0.7	-2.0
지식서비스	5.4	5.0	3.6	3.2	2.6	2.9	2.3	2.5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44만 9,000명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기록
- 39만 7,000명(2023년 6월) → 32만 2,000명(7월) → 33만 7,000명(8월) → 33만 명(9월) → 35만 5,000명(10월) → 23만 8,000명(11월) → 20만 4,000명(12월)

### (3) 서비스수지

□ 지난해 12월 서비스수지, 25억 3,500만 달러 적자

- 12월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 확대,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의 적자 전환 등으로 인해 지난달에 비해 적자규모가 3억 달러 이상 증가
- 가공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유지보수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수지, 우편 및 상업 송달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항공운송수지의 흑자 규모가 9,700만 달러 증가하며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서비스수지	-5,287	-7,253	-25,660	-7,332	-6,026	-1,280	-2,211	-2,535
가공서비스	-6,123	-6,206	-6,793	-1,819	-1,731	-542	-569	-620
유지보수	-951	-1,655	-1,935	-490	-602	-190	-206	-205
운송	12,875	13,097	-1,546	-34	-1,005	-317	-356	-331
여행	-7,026	-8,369	-12,527	-3,549	-3,219	-596	-1,282	-1,342
건설	4,270	4,840	4,504	930	1,261	365	374	522
보험	-362	-22	-219	-93	213	91	54	68
금융	1,678	695	1,551	323	522	187	134	201
지식재산권사용료	-3,046	-3,742	-3,296	-977	-352	-339	236	-248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2,842	1,039	3,121	654	918	322	171	425
기타사업서비스	-9,573	-7,029	-9,223	-2,434	-2,351	-446	-853	-1,052
개인, 문화, 여가	783	662	892	167	250	98	27	125
정부	-654	-564	-190	-11	68	87	59	-78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하지만 올해 8월 적자 전환 이후 운송수지의 적자 규모는 증가세 기록
- 여행수지는 13억 4,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7월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
  -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8~9월까지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 특히, 12월의 경우 연말 연시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적자 규모가 증가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지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수입이 9억 달러 이상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
  -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이 6억 1,000만 달러,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수입이 2억 7,000만 달러 감소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적자 전환을 주도
-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2억 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한 4억 2,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올해 가장 큰 흑자 규모
  - 통신서비스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으나, 컴퓨터수지, 정보서비스수지의 흑자 규모가 각각 1억 7,000만 달러, 9,000만 달러 이상 증가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10월부터 적자 규모 증가세가 지속되며 10억 5,200만 달러 적자 기록
  -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가 2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으나, 연구개발 서비스수지,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가 각각 2억 3,000만 달러, 1억 7,000만 달러 이상 증가
-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72억 달러 적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56억 달러 적자를 기록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해상운송수지의 적자 전환, 여행수요 감소에 따른 항공운송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운송수지가 지난해 약 130억 달러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는 빠르게 회복한 반면, 방한 외래관광객 수요의 더딘 회복세에 따라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도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확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 IV

## 지역별 동향

### 01 개관

#### (1) 생산

- 지난해 12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증가
  - 경기(18.2%), 서울(3.9%)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강원(-14.1%), 세종(-12.1%), 전북(-9.6%)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8.2	1.4	-3.8	-7.6	-2.0	4.2	3.0	0.8	5.5	6.2
수도권	서울	9.1	-2.0	-5.2	-5.0	0.2	-1.8	1.0	-4.6	-5.5	3.9
	인천	13.2	1.0	0.2	-1.1	-2.3	1.0	-10.8	3.1	2.5	-2.5
	경기	14.3	4.1	-8.3	-16.6	-2.6	11.4	8.8	2.2	13.9	18.2
충청권	대전	4.2	-1.4	-4.9	-4.9	-7.2	-4.9	-9.9	-7.0	-1.2	-6.5
	세종	10.4	3.3	-3.5	1.7	-3.4	-6.9	-6.2	-4.0	-3.9	-12.1
	충북	14.4	-0.8	-6.6	-7.9	-7.6	1.1	-8.1	4.6	-1.4	0.3
	충남	12.0	-0.2	-4.3	-4.1	-4.5	-2.4	-2.3	-2.7	-2.5	-2.0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호남권	광주	7.3	3.2	-1.4	-2.7	-1.3	-4.6	-3.5	-6.6	-4.5	-3.0
	전북	7.8	2.9	-5.7	-2.4	-6.8	-10.1	-6.4	-11.3	-9.2	-9.6
	전남	8.0	-2.9	-1.5	-2.5	-2.1	2.1	0.9	1.0	2.9	2.6
대경권	대구	11.5	5.0	-2.4	-1.0	-6.2	-7.1	-8.4	-3.3	-3.3	-9.1
	경북	4.8	-1.4	-3.9	-5.7	-7.7	-2.0	0.1	-4.6	1.1	-2.6
동남권	부산	2.4	9.7	-9.6	-9.1	-15.8	-12.0	-11.1	-14.8	-12.6	-8.6
	울산	6.6	-1.0	-1.7	-2.8	0.4	-2.6	2.0	-1.0	-4.0	-2.9
	경남	3.9	5.7	-0.6	-2.5	0.8	-3.1	0.0	-3.2	0.4	-6.3
강원권		1.7	5.7	1.1	1.0	1.4	-5.7	7.8	-4.1	1.7	-14.1
제주권		5.4	6.7	-2.4	0.7	-3.1	-7.2	2.5	-9.0	-7.0	-5.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 (2) 고용

- 지난해 12월 전국 취업자 수는 2,809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0% 증가
  - 대전(-2.4%), 제주(-2.0%), 부산(-1.2%)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북(4.0%), 충북(2.5%), 광주(2.4%)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7,273 (1.4)	28,089 (3.0)	28,416 (1.2)	28,693 (1.2)	28,687 (0.9)	28,518 (1.1)	28,698 (1.1)	28,764 (1.2)	28,698 (1.0)	28,093 (1.0)
수도권	서울	5,055 (0.1)	5,113 (1.1)	5,174 (1.2)	5,196 (1.2)	5,188 (1.1)	5,215 (1.7)	5,181 (1.0)	5,223 (2.3)	5,230 (1.8)	5,192 (1.1)
	인천	1,563 (0.2)	1,614 (3.3)	1,655 (2.5)	1,663 (3.0)	1,684 (2.7)	1,660 (1.2)	1,684 (2.5)	1,672 (1.6)	1,661 (0.4)	1,647 (1.5)
	경기	7,150 (3.5)	7,597 (6.3)	7,653 (0.7)	7,694 (-0.1)	7,727 (0.4)	7,715 (1.4)	7,724 (0.8)	7,748 (1.2)	7,752 (1.6)	7,645 (1.5)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충청권	대전	785 (0.6)	794 (1.1)	797 (0.4)	800 (1.4)	798 (0.1)	797 (-1.0)	807 (1.1)	803 (-0.5)	804 (0.0)	783 (-2.4)
	세종	185 (2.8)	197 (6.5)	208 (5.6)	212 (6.5)	211 (5.0)	207 (2.5)	210 (4.0)	211 (4.5)	207 (1.5)	203 (1.0)
	충북	897 (0.8)	926 (3.2)	939 (1.4)	953 (1.4)	951 (1.4)	943 (1.4)	953 (1.9)	954 (1.3)	946 (0.5)	929 (2.5)
	충남	1,193 (1.4)	1,226 (2.8)	1,248 (1.8)	1,278 (3.0)	1,278 (0.9)	1,256 (0.9)	1,282 (0.9)	1,280 (-0.2)	1,285 (1.4)	1,204 (1.6)
호남권	광주	745 (-0.4)	750 (0.7)	769 (2.5)	770 (2.8)	773 (2.5)	773 (2.1)	775 (2.6)	776 (1.8)	780 (2.1)	763 (2.4)
	전북	953 (2.3)	968 (1.6)	983 (1.5)	990 (0.4)	1,002 (1.1)	986 (2.6)	1,003 (1.8)	999 (1.4)	1,003 (2.2)	955 (4.0)
	전남	985 (1.1)	1,010 (2.5)	1,019 (0.9)	1,041 (1.7)	1,024 (0.3)	1,007 (-0.9)	1,020 (-1.0)	1,018 (-0.8)	1,016 (-1.7)	987 (-0.2)
대경권	대구	1,217 (2.8)	1,228 (0.9)	1,247 (1.5)	1,265 (2.6)	1,264 (2.0)	1,237 (0.9)	1,257 (1.5)	1,261 (2.2)	1,238 (0.7)	1,214 (0.1)
	경북	1,410 (-0.6)	1,462 (3.7)	1,462 (0.0)	1,497 (0.3)	1,465 (-1.4)	1,458 (-0.4)	1,474 (-0.1)	1,486 (-0.5)	1,475 (-0.6)	1,414 (-0.1)
동남권	부산	1,657 (1.0)	1,679 (1.3)	1,691 (0.7)	1,697 (1.0)	1,705 (0.5)	1,684 (-0.5)	1,712 (0.9)	1,701 (0.6)	1,683 (-0.8)	1,669 (-1.2)
	울산	555 (-0.9)	566 (2.0)	572 (1.1)	574 (0.9)	573 (0.2)	575 (0.7)	574 (0.3)	575 (0.3)	580 (0.7)	570 (1.1)
	경남	1,732 (0.2)	1,740 (0.5)	1,760 (1.1)	1,792 (1.5)	1,771 (1.5)	1,763 (1.3)	1,768 (1.6)	1,783 (2.0)	1,772 (0.7)	1,735 (1.3)
강원권		809 (1.8)	818 (1.1)	841 (2.8)	871 (3.9)	869 (2.5)	836 (2.0)	868 (2.2)	867 (2.4)	857 (1.9)	784 (1.4)
제주권		383 (1.3)	402 (5.0)	401 (-0.2)	401 (1.0)	405 (0.2)	406 (-1.7)	406 (0.0)	408 (-1.9)	411 (-1.2)	400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 (3) 수출

- 지난해 12월 전국 수출은 전년동월비 5.0% 증가한 576억 달러를 기록
  - 경남(44.2%), 제주(33.3%), 대전(18.8%)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북(-26.3%), 대구(-17.4%), 충북(-16.7%)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5.7	6.1	-7.5	-12.0	-9.7	5.8	-4.4	4.9	7.4	5.0
수도권	서울	28.5	-2.4	-0.8	-3.0	1.0	6.3	-0.3	9.2	9.5	0.5
	인천	25.7	14.5	-0.9	5.7	-9.8	7.1	-5.5	3.6	13.6	4.2
	경기	19.7	-0.3	-5.6	-15.9	-5.2	20.4	2.3	19.2	27.6	15.1
충청권	대전	-1.3	-5.4	-8.6	-11.6	-17.3	10.1	-5.2	16.7	-5.7	18.8
	세종	17.8	5.8	-23.1	-31.5	-23.4	0.8	-25.7	-13.0	7.8	11.7
	충북	15.7	12.7	-14.1	-17.0	-21.0	-8.9	-24.3	-5.3	-3.8	-16.7
	충남	30.9	3.2	-26.1	-31.1	-27.3	-7.2	-26.9	-21.1	-6.3	8.5
호남권	광주	20.6	8.1	-1.2	-3.4	0.2	-7.3	5.8	-8.4	-9.8	-3.3
	전북	33.9	5.1	-14.1	-8.1	-15.0	-19.3	-9.6	-14.8	-16.5	-26.3
	전남	59.8	14.2	-8.1	-19.8	-14.6	8.7	0.5	13.1	18.8	-5.8
대경권	대구	26.6	34.1	3.5	12.9	-8.4	-13.3	-6.2	-10.9	-11.4	-17.4
	경북	19.5	5.8	-12.4	-15.9	-6.8	-7.7	1.5	-5.5	-2.2	-15.3
동남권	부산	30.9	9.3	-6.6	-5.2	-9.7	-4.9	-12.6	-9.5	-4.4	-1.0
	울산	32.4	21.3	-3.0	-11.2	-6.1	5.7	5.2	10.1	4.5	3.2
	경남	9.4	-7.2	15.2	25.3	6.8	31.7	22.7	47.7	3.1	44.2
강원권		34.9	0.8	-1.3	-6.9	15.5	5.7	1.3	-0.9	5.9	12.5
제주권		47.1	-13.6	-1.5	-22.0	15.0	28.3	7.1	38.5	15.8	33.3

자료: 한국무역협회.

### (1) 수도권

#### □ 서울

- 지난해 12월 생산 증가(3.9%), 고용 증가(1.1%), 수출 소폭 증가(0.5%)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7.2%)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21.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0.6%)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12.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1%)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6.9%), 합성수지(2.3%)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21.6%)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는 소폭에 그침.

#### □ 인천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2.5%), 고용 증가(1.5%), 수출 증가(4.2%)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0.4%)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1%)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5.8%)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8.5%), 반도체(2.6%)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 경기

- 지난해 12월 생산 증가(18.2%), 고용 증가(1.5%), 수출 증가(15.1%)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7.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4.1%)의 생산이

##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6	-0.1	-12.4	-18.2	-7.4	-14.6	-8.2	-18.2	-17.6	-7.2
		전자부품 외	9.0	-3.9	-1.0	18.6	-5.1	-5.8	-2.2	-12.0	-6.3	0.6
		식료품	-2.3	4.5	18.7	21.8	6.3	30.4	8.7	44.7	27.7	21.5
	인천	기계 및 장비	62.9	-12.3	-7.4	-4.7	-30.2	1.0	-42.1	2.4	-0.2	1.0
		전자부품 외	5.4	14.5	21.1	11.1	41.5	9.9	9.0	26.0	16.1	-11.1
		의약품 외	26.2	14.9	-8.1	-12.2	-11.6	6.0	-10.9	7.5	10.4	-0.4
	경기	전자부품 외	23.3	7.8	-10.3	-24.0	-1.2	31.1	18.1	8.4	37.5	49.5
		기계 및 장비	14.2	3.7	-18.8	-18.2	-20.0	-23.0	-13.0	-20.5	-31.8	-17.2
		고무 및 플라스틱	0.6	-3.6	-6.9	-9.5	-2.6	-5.7	-0.5	-8.4	-4.6	-4.1
고용	서울	농림·어업	5 (-28.6)	6 (20.0)	4 (-33.3)	5 (-28.6)	4 (-42.9)	4 (-33.3)	4 (-42.9)	4 (-33.3)	4 (-33.3)	4 (-33.3)
		제조업	442 (-1.1)	450 (1.8)	473 (5.1)	467 (4.0)	478 (4.6)	494 (12.3)	476 (5.3)	487 (10.9)	495 (13.0)	500 (12.9)
		SOC·서비스	4,609 (0.3)	4,658 (1.1)	4,696 (0.8)	4,724 (1.0)	4,706 (0.8)	4,717 (0.8)	4,702 (0.7)	4,732 (1.5)	4,731 (0.7)	4,689 (0.1)
	인천	농림·어업	9 (-35.7)	2 (-77.8)	2 (0.0)	3 (50.0)	2 (0.0)	0 (-100.0)	2 (0.0)	1 (0.0)	0 (-100.0)	1 (-50.0)
		제조업	312 (-3.7)	322 (3.2)	315 (-2.2)	314 (-2.8)	323 (0.3)	314 (-2.2)	321 (-2.4)	313 (-4.9)	312 (-1.0)	319 (0.0)
		SOC·서비스	1,241 (1.6)	1,289 (3.9)	1,338 (3.8)	1,346 (4.5)	1,359 (3.4)	1,345 (2.0)	1,361 (3.7)	1,359 (3.4)	1,349 (0.9)	1,328 (2.1)
	경기	농림·어업	107 (0.0)	131 (22.4)	147 (12.2)	168 (15.1)	176 (8.6)	152 (19.7)	182 (13.0)	185 (18.6)	172 (20.3)	100 (20.5)
		제조업	1,344 (4.8)	1,468 (9.2)	1,421 (-3.2)	1,431 (-3.1)	1,424 (-4.4)	1,383 (-6.7)	1,403 (-5.9)	1,381 (-8.1)	1,385 (-6.9)	1,382 (-5.3)
		SOC·서비스	5,699 (3.3)	5,999 (5.3)	6,084 (1.4)	6,094 (0.3)	6,126 (1.4)	6,179 (3.1)	6,139 (2.1)	6,181 (3.0)	6,194 (3.2)	6,161 (2.9)
수출	서울	68,538 (28.5)	66,904 (-2.4)	66,351 (-0.8)	17,200 (-3.0)	16,608 (1.0)	16,339 (6.3)	5,616 (-0.3)	5,415 (9.2)	5,599 (9.5)	5,325 (0.5)	
	인천	47,395 (25.7)	54,309 (14.6)	53,806 (-0.9)	13,796 (5.7)	13,281 (-9.8)	14,278 (7.1)	4,593 (-5.5)	4,691 (3.6)	5,048 (13.6)	4,539 (4.2)	
	경기	137,832 (19.7)	137,460 (-0.3)	129,766 (-5.6)	30,485 (-15.9)	32,808 (-5.2)	37,445 (20.4)	11,920 (2.3)	11,534 (19.2)	12,736 (27.6)	13,175 (15.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9.5%)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5.3%)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2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31.6%), 자동차(15.1%), 반도체제조용장비(10.9%)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2) 충청권

### □ 대전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6.5%), 고용 감소(-2.4%), 수출 증가(18.8%)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5.9%)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6%), 담배 제조업(-23.8%)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2.6%)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2%)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상위 수출품인 원동기 및 펌프(-7.8%), 반도체(-1.8%)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측제어 분석기(97.3%)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 세종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12.1%), 고용 증가(1.0%), 수출 증가(11.7%)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1.3%)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4.7%), 식료품 제조업(-10.9%)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4%)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기타화학공업제품(925.6%), 농약 및 의약품(92.6%), 기구부품(36.1%)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2.6	-1.8	2.5	2.2	-2.0	-7.4	-15.9	-3.5	2.2	-23.8
		화학제품 외	-10.0	-21.2	-18.6	-8.8	2.9	-7.3	1.7	-23.3	8.3	-8.6
		기계 및 장비	1.2	8.1	8.0	11.7	-3.0	22.2	-19.1	15.9	36.0	15.9
	세종	전자부품 외	30.8	7.6	-36.4	-41.9	-39.0	-13.1	-42.8	-32.3	-6.9	11.3
		화학제품 외	3.8	3.4	-21.1	-2.8	-11.4	-44.5	-15.2	-12.6	-30.1	-64.7
		식료품	2.5	-1.5	7.2	13.9	4.2	1.9	-5.5	13.0	5.7	-10.9
	배재	전자부품 외	32.4	-5.1	-7.7	-13.8	-5.6	39.1	-4.6	57.9	18.1	48.0
		화학제품 외	19.3	-38.1	-13.8	-13.1	0.5	-5.1	-6.3	-3.9	-1.1	-10.6
		식료품	4.5	2.7	-4.9	-4.1	-3.3	-3.6	-0.9	-2.6	-0.6	-7.5
	충남	전자부품 외	27.2	-7.9	-14.5	-15.5	-7.2	-8.8	0.8	-9.8	-8.9	-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	7.9	13.4	14.7	6.7	6.6	1.1	11.9	5.4	2.8
		화학제품 외	9.3	-4.0	-8.5	-16.7	-6.2	0.6	-4.5	-2.0	-0.1	4.1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0.0)	9 (12.5)	8 (-11.1)	8 (-11.1)	9 (0.0)	8 (0.0)	9 (0.0)	9 (12.5)	8 (0.0)	7 (16.7)
		제조업	91 (-13.3)	78 (-14.3)	77 (-1.3)	78 (0.0)	76 (0.0)	77 (-1.3)	78 (0.0)	75 (-5.1)	77 (1.3)	79 (2.6)
		SOC·서비스	684 (2.5)	707 (3.4)	712 (0.7)	714 (1.7)	713 (0.1)	711 (-1.3)	720 (1.4)	719 (0.0)	719 (-0.3)	696 (-3.2)
	세종	농림·어업	9 (12.5)	8 (-11.1)	7 (-12.5)	9 (-10.0)	8 (0.0)	7 (0.0)	8 (0.0)	8 (0.0)	7 (-12.5)	5 (-16.7)
		제조업	24 (0.0)	28 (16.7)	30 (7.1)	30 (7.1)	30 (3.4)	31 (3.3)	31 (6.9)	31 (6.9)	31 (0.0)	31 (0.0)
		SOC·서비스	153 (3.4)	161 (5.2)	171 (6.2)	173 (6.8)	172 (4.9)	170 (3.7)	171 (4.3)	172 (4.9)	169 (2.4)	168 (2.4)
	배재	농림·어업	96 (3.2)	101 (5.2)	106 (5.0)	115 (8.5)	119 (9.2)	103 (6.2)	117 (6.4)	116 (10.5)	105 (4.0)	87 (2.4)
		제조업	212 (5.5)	198 (-6.6)	197 (-0.5)	201 (1.5)	198 (2.1)	199 (5.3)	198 (2.6)	194 (3.2)	198 (4.8)	204 (8.5)
		SOC·서비스	588 (-1.3)	626 (6.5)	635 (1.4)	637 (0.5)	634 (-0.2)	642 (-0.3)	637 (1.0)	644 (-0.8)	642 (-1.2)	638 (0.8)
	충남	농림·어업	177 (9.3)	179 (1.1)	169 (-5.6)	189 (-10.4)	198 (-3.4)	170 (5.6)	201 (1.5)	199 (1.0)	191 (8.5)	120 (9.1)
		제조업	257 (2.8)	252 (-1.9)	272 (7.9)	278 (14.9)	273 (7.5)	271 (5.0)	269 (5.5)	269 (3.5)	274 (6.2)	269 (4.7)
		SOC·서비스	760 (-0.5)	795 (4.6)	807 (1.5)	811 (2.9)	807 (-0.1)	816 (-1.1)	812 (-0.7)	812 (-1.7)	820 (-1.6)	815 (-0.4)
수출	대전	4,953 (-1.3)	4,686 (-5.4)	4,281 (-8.6)	1,145 (-11.6)	935 (-17.3)	1,132 (10.1)	312 (-5.2)	406 (16.7)	316 (-5.7)	410 (18.8)	
	세종	1,532 (17.8)	1,621 (5.8)	1,246 (-23.1)	300 (-31.5)	314 (-23.4)	359 (0.8)	110 (-25.7)	120 (-13.0)	124 (7.8)	115 (11.7)	
	충북	28,766 (15.7)	32,428 (12.7)	27,856 (-14.1)	6,973 (-17.0)	6,895 (-21.0)	6,539 (-8.9)	2,361 (-24.3)	2,115 (-5.3)	2,272 (-3.8)	2,152 (-16.7)	
	충남	104,122 (30.9)	107,489 (3.2)	79,396 (-26.1)	19,531 (-31.1)	19,703 (-27.3)	21,454 (-7.2)	6,839 (-26.9)	6,699 (-21.1)	6,971 (-6.3)	7,784 (8.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 충북

- 지난해 12월 생산 소폭 증가(0.3%), 고용 증가(2.5%), 수출 감소(-16.7%)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8.0%)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0.6%), 식료품 제조업(-7.5%)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제조업(8.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8%)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목인 반도체(45.0%)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지 및 축전지(-12.1%), 플라스틱제품(-11.5%)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 충남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2.0%), 고용 증가(1.6%), 수출 증가(8.5%)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1%), 자동차 및 트레일러(2.8%)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7.5%)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4.7%)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력수출품 중 석유제품(-6.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1%)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5.3%)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3) 호남권

### □ 광주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3.0%), 고용 증가(2.4%), 수출 감소(-3.3%)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장비(-12.1%), 기타 기계 및 장비(-7.9%)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	9.7	12.1	18.9	11.2	-2.1	13.3	-3.9	-4.6	2.0
		전기장비	15.7	-7.6	-17.6	-24.7	-1.9	-16.4	-13.1	-24.8	-11.5	-12.1
		기계 및 장비	10.6	1.0	-1.7	-6.5	0.6	-4.1	-12.9	-2.4	-2.5	-7.9
	전북	식료품	-1.2	2.9	-5.9	-6.8	-6.9	-3.6	-0.9	-1.6	-2.9	-6.0
		화학제품 외	-1.5	-4.3	-6.8	-12.4	-6.9	-4.1	-4.6	-7.9	-1.7	-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2	14.2	-3.7	12.9	-6.7	-19.9	-13.9	-19.1	-16.5	-23.7
	전남	화학제품 외	11.5	-6.5	-2.6	-5.0	-3.3	9.2	4.0	7.4	14.9	6.0
		1차 금속 제조업	7.6	-2.9	-1.0	0.8	-3.1	-1.0	-6.6	-0.7	-6.7	4.7
		석유정제품	11.1	3.8	-0.4	-1.3	-1.0	-1.1	-0.7	-0.6	-0.2	-2.5
고용	광주	농림·어업	12 (-25.0)	15 (25.0)	21 (40.0)	21 (31.3)	22 (37.5)	22 (46.7)	23 (53.3)	22 (57.1)	22 (46.7)	21 (23.5)
		제조업	100 (-6.5)	104 (4.0)	102 (-1.9)	104 (-2.8)	104 (-1.0)	101 (-1.0)	104 (0.0)	101 (-1.9)	100 (-2.0)	101 (-1.0)
		SOC·서비스	632 (1.1)	631 (-0.2)	646 (2.4)	645 (3.0)	647 (2.1)	650 (1.7)	648 (2.0)	652 (1.1)	657 (1.5)	641 (2.4)
	전북	농림·어업	169 (-5.6)	172 (1.8)	166 (-3.5)	175 (-2.2)	175 (-5.9)	163 (-4.1)	174 (-5.4)	174 (-4.9)	169 (-4.0)	147 (-2.6)
		제조업	120 (-2.4)	119 (-0.8)	128 (7.6)	127 (12.4)	132 (12.8)	131 (5.6)	134 (12.6)	132 (7.3)	131 (4.8)	129 (5.7)
		SOC·서비스	663 (5.2)	677 (2.1)	688 (1.6)	687 (-0.9)	695 (1.0)	691 (3.6)	695 (1.9)	692 (2.1)	703 (3.5)	679 (5.4)
	전남	농림·어업	221 (7.8)	234 (5.9)	223 (-4.7)	230 (-2.1)	228 (-5.4)	216 (-9.2)	227 (-7.3)	224 (-6.7)	222 (-7.5)	204 (-12.8)
		제조업	97 (-8.5)	99 (2.1)	102 (3.0)	99 (-1.0)	102 (3.0)	106 (11.6)	102 (5.2)	105 (12.9)	107 (11.5)	105 (8.2)
		SOC·서비스	667 (0.8)	678 (1.6)	694 (2.4)	712 (3.5)	694 (2.1)	685 (0.3)	691 (0.4)	690 (-0.4)	687 (-1.7)	678 (2.9)
	수출	광주	16,604 (20.6)	17,946 (8.1)	17,721 (-1.2)	4,540 (-3.4)	4,714 (0.2)	4,041 (-7.3)	1,493 (5.8)	1,330 (-8.4)	1,395 (9.8)	1,316 (-3.3)
		전북	7,820 (33.9)	8,223 (5.2)	7,064 (-14.1)	1,971 (-8.1)	1,712 (-15.0)	1,502 (-19.3)	593 (-9.6)	508 (-14.8)	518 (-16.5)	476 (-26.3)
		전남	43,294 (59.8)	49,438 (14.2)	45,409 (-8.1)	10,735 (-19.8)	11,235 (-14.6)	11,826 (8.7)	4,022 (0.5)	4,411 (13.1)	4,059 (18.8)	3,356 (-5.8)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제조업(-1.0%)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23.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4%)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24.5%), 고무제품(10.1%)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1.6%)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 전북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9.6%), 고용 증가(4.0%), 수출 감소(-26.3%)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3.7%), 식료품(-6.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7%)의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2.6)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5.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4)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32.3)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약 및 의약품(-32.7%), 농기계(-23.5)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 전남

- 지난해 12월 생산 증가(2.6%), 고용 소폭 감소(-0.2%), 수출 감소(-5.8%)
  - 주요 업종인 석유정제품(-2.5%)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0%), 1차 금속 제조업(4.7%)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8.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2.8%)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383.3%)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24.9%), 합성수지(-2.3%)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4) 대경권

#### □ 대구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9.1%), 고용 소폭 증가(0.1%), 수출 감소(-17.4%)

##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대구	금속가공제품	7.2	-3.2	-1.2	3.2	-5.3	-5.7	1.1	-8.0	-9.4	1.1
		기계 및 장비	31.1	11.0	-7.1	-5.8	-16.6	-17.0	-24.8	-3.9	3.3	-2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7	9.0	8.3	14.8	8.9	-0.6	-0.3	0.0	1.7	-3.7
	경북	전자부품 외	7.3	-7.4	-10.8	-18.5	-14.9	-9.5	-11.5	-16.4	-5.7	-3.9
		1차 금속	1.8	-16.7	3.8	-5.3	7.6	41.7	72.3	84.8	37.5	15.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1	16.9	9.8	16.3	5.1	-2.5	-1.1	-2.2	-1.5	-3.7
고용	대구	농림·어업	15 (-51.6)	10 (-33.3)	11 (10.0)	12 (0.0)	14 (27.3)	12 (20.0)	15 (25.0)	13 (18.2)	11 (0.0)	11 (37.5)
		제조업	239 (3.5)	240 (0.4)	242 (0.8)	243 (1.7)	243 (-0.4)	241 (0.4)	246 (0.8)	243 (3.4)	243 (0.4)	238 (-1.7)
		SOC·서비스	963 (4.3)	978 (1.6)	994 (1.6)	1,011 (3.0)	1,008 (2.4)	984 (0.8)	996 (1.4)	1,004 (1.6)	983 (0.6)	965 (0.2)
	경북	농림·어업	274 (4.6)	280 (2.2)	285 (1.8)	302 (5.6)	291 (-0.3)	285 (-2.7)	291 (-1.0)	298 (-2.9)	288 (-6.2)	268 (0.8)
		제조업	283 (-3.1)	293 (3.5)	260 (-11.3)	258 (-13.4)	252 (-14.9)	263 (-6.1)	253 (-13.9)	258 (-10.4)	263 (-4.4)	267 (-3.6)
		SOC·서비스	853 (-1.2)	888 (4.1)	917 (3.3)	936 (3.1)	923 (2.9)	911 (2.2)	931 (4.7)	930 (3.7)	923 (2.3)	879 (0.6)
수출	대구	7,934 (26.6)	10,642 (34.1)	11,017 (3.5)	2,994 (12.9)	2,564 (-8.4)	2,462 (-13.3)	844 (-6.2)	776 (-10.9)	885 (-11.4)	801 (-17.4)	
	경북	44,314 (19.5)	46,888 (5.8)	41,064 (-12.4)	9,870 (-15.9)	10,237 (-6.8)	10,616 (-7.7)	3,740 (1.5)	3,635 (-5.5)	3,726 (-2.2)	3,255 (-15.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주요 업종인 금속가공제품(1.1%)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21.9%), 자동차 및 트레일러(-3.7%)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37.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2%)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기타기계류(67.5%), 자동차부품(1.8%)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밀 화학원료(-54.0%)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 경북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2.6%), 고용 소폭 감소(-0.1), 수출 감소(-15.3%)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15.9%)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9%), 자동차 및 트레일러(-3.7%)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3.6%)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5.4%)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판(-55.0%), 정밀화학 원료(-29.1%)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5) 동남권

### □ 부산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8.6%), 고용 감소(-1.2%), 수출 감소(-1.0%)
  - 주요 업종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1%)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 (-8.6%), 식료품 제조업(-6.1%)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2.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0%)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19.0%), 자동차(1.8%)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및 펌프(-4.2%)의 수출은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 울산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2.9%), 고용 증가(1.1%), 수출 증가(3.2%)

##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부산	기계 및 장비	-2.5	4.5	-1.6	-3.2	-2.9	-8.2	0.5	-6.4	-9.2	-8.6
		금속 가공제품	-11.5	2.0	6.8	5.7	5.8	1.3	10.3	3.6	-0.6	1.1
		식료품	3.6	-0.8	-9.5	-13.5	-8.7	-4.5	-3.7	-4.6	-2.7	-6.1
	울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	2.2	7.8	10.8	5.3	-1.3	-6.0	3.8	-5.0	-2.3
		화학제품 외	6.9	-10.5	-6.5	-9.6	2.8	-4.0	13.3	3.7	-1.9	-12.5
		석유정제품	-1.5	9.4	-5.3	-8.4	-10.6	3.9	-1.3	-2.6	3.9	11.0
	경남	기계 및 장비	9.9	4.1	-9.3	-5.9	-7.3	-22.0	-6.1	-16.4	-21.4	-26.9
		기타 운송장비	-12.7	18.6	16.4	10.1	22.2	24.5	18.7	23.1	29.5	21.4
		금속가공제품	-5.7	8.7	3.1	-1.0	1.5	-4.6	-4.7	-13.4	13.5	-11.2
고용	부산	농림·어업	11 (57.1)	19 (72.7)	22 (15.8)	23 (15.0)	24 (33.3)	21 (10.5)	24 (33.3)	21 (16.7)	21 (5.0)	21 (5.0)
		제조업	240 (-5.9)	225 (-6.3)	221 (-1.8)	219 (-4.4)	222 (0.0)	221 (-0.5)	220 (0.0)	222 (-0.4)	222 (0.9)	217 (-2.7)
		SOC·서비스	1,407 (2.1)	1,435 (2.0)	1,449 (1.0)	1,455 (1.6)	1,460 (0.3)	1,443 (-0.6)	1,468 (0.7)	1,457 (0.5)	1,440 (-1.1)	1,431 (-1.0)
	울산	농림·어업	6 (-14.3)	6 (0.0)	6 (0.0)	7 (16.7)	6 (-14.3)	5 (-28.6)	5 (-28.6)	5 (-28.6)	5 (-28.6)	5 (-16.7)
		제조업	163 (0.6)	168 (3.1)	180 (7.1)	179 (9.8)	182 (5.8)	180 (-0.6)	181 (4.0)	180 (1.7)	180 (-0.6)	181 (-1.6)
		SOC·서비스	385 (-1.8)	392 (1.8)	386 (-1.5)	388 (-3.2)	385 (-2.3)	390 (1.6)	387 (-1.0)	389 (0.0)	395 (1.8)	384 (2.7)
	경남	농림·어업	203 (10.3)	220 (8.4)	208 (-5.5)	219 (-6.4)	217 (-8.8)	201 (-6.1)	223 (-6.3)	225 (-3.4)	198 (-7.5)	178 (-8.7)
		제조업	377 (-5.5)	390 (3.4)	372 (-4.6)	360 (-8.6)	359 (-5.8)	394 (-0.3)	370 (-2.6)	383 (-0.8)	397 (-1.0)	403 (1.3)
		SOC·서비스	1,151 (0.5)	1,130 (-1.8)	1,179 (4.3)	1,213 (6.6)	1,193 (6.0)	1,167 (3.2)	1,174 (4.7)	1,174 (4.0)	1,175 (2.6)	1,153 (2.9)
수출	부산	14,816 (30.9)	16,192 (9.3)	15,116 (-6.6)	3,996 (-5.2)	3,719 (-9.7)	3,669 (-4.9)	1,245 (-12.6)	1,137 (-9.5)	1,230 (-4.4)	1,302 (-1.0)	
	울산	74,268 (32.4)	90,154 (21.4)	87,407 (-3.0)	20,730 (-11.2)	21,769 (-6.1)	23,537 (5.7)	7,594 (5.2)	7,667 (10.1)	7,318 (4.5)	8,552 (3.2)	
	경남	39,262 (9.4)	36,429 (-7.2)	41,981 (15.2)	10,807 (25.3)	9,857 (6.8)	12,300 (31.7)	3,126 (22.7)	4,328 (47.7)	3,178 (3.1)	4,794 (44.2)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대표 업종인 석유정제품(11.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5%), 자동차 및 트레일러(-2.3%)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제조업(-1.6%)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7%)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34.7%), 석유제품(13.3%), 자동차(2.2%)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 경남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6.3%), 고용 증가(1.3%), 수출 증가(44.2%)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21.4%)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계 및 장비(-26.9%), 금속가공제품(-11.2%)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 제조업(1.3%)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14.9%)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3,860.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62.7%)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6) 강원·제주권

### □ 강원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14.1%), 고용 증가(1.4%), 수출 증가(12.5%)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5.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23.6%), 음료 제조업(-25.1%)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의 고용이 감소했으나, 제조업(19.6%), 농림·어업(18.4%)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8.4%)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산가공품(34.0%), 전자응용기기(0.6%)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강원	비금속 광물제품	-1.4	-1.6	-5.5	-3.0	-9.2	-4.7	-1.9	-14.4	-3.7	5.0
		식료품	1.2	0.8	-6.4	-6.2	2.3	-13.2	12.8	-6.5	-8.5	-23.6
		음료	5.0	29.6	3.5	1.6	3.4	-1.8	-2.4	12.7	7.4	-25.1
	제주	음료	4.4	0.8	-7.4	-5.1	-10.7	-18.4	-9.7	-28.2	-25.7	2.3
		식료품	2.4	8.1	-6.9	-11.7	-6.5	-4.7	2.9	-4.6	0.0	-9.6
		비금속 광물제품	4.0	1.4	2.8	20.3	-5.1	-6.0	12.7	-0.5	-13.2	-3.5
고용	강원	농림·어업	69 (-15.9)	72 (4.3)	77 (6.9)	88 (0.0)	98 (11.4)	79 (23.4)	99 (16.5)	100 (22.0)	91 (24.7)	45 (18.4)
		제조업	55 (-3.5)	54 (-1.8)	55 (1.9)	55 (1.9)	55 (5.8)	61 (15.1)	55 (7.8)	60 (9.1)	62 (17.0)	61 (19.6)
		SOC·서비스	678 (4.5)	686 (1.2)	705 (2.8)	724 (5.1)	711 (1.1)	693 (-0.9)	710 (0.4)	702 (-0.4)	700 (-1.5)	675 (-0.7)
	제주	농림·어업	67 (-9.5)	63 (-6.0)	52 (-17.5)	52 (-18.8)	49 (-21.0)	52 (-20.0)	51 (-17.7)	53 (-17.2)	53 (-17.2)	51 (-22.7)
		제조업	14 (16.7)	16 (14.3)	15 (-6.3)	16 (0.0)	15 (-6.3)	13 (-18.8)	15 (0.0)	13 (-13.3)	13 (-18.8)	13 (-18.8)
		SOC·서비스	302 (3.4)	323 (7.0)	335 (3.7)	334 (5.4)	341 (4.6)	341 (2.4)	341 (3.6)	342 (1.5)	345 (2.7)	337 (3.4)
수출	강원	2,729 (34.9)	2,750 (0.8)	2,713 (-1.3)	692 (-6.9)	732 (15.5)	666 (5.7)	227 (1.3)	217 (-0.9)	215 (5.9)	234 (12.5)	
	제주	228 (47.1)	197 (-13.6)	194 (-1.5)	39 (-22.0)	46 (15.0)	68 (28.3)	15 (7.1)	18 (38.5)	22 (15.8)	28 (33.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 제주

- 지난해 12월 생산 감소(-5.8%), 고용 감소(-2.0%), 수출 증가(33.3%)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2.3%)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광물제품(-3.5%), 식료품 제조업(-9.6%)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4%)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22.7%), 제조업(-18.8%)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지역 수출품 중 어류(-9.5%)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5.0%)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01 주요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 (1) 안경산업

- (특징) 안경은 시력보정·보호기능 외에도 제품의 다양성과 패션성을 가진 고급·고부가 가치 상품이며, 소비자의 명품 브랜드 선호 경향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고가품 안경시장은 하락세  
 -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K패션이 유행하면서 한국의 패션 아이템 가운데 하나인 안경에 수출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증가
- (현황) 국내 안경 생산은 2016년 7,1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7,310억 원으로 0.4%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는 제품 고급화로 생산보다 조금 높은 0.6% 성장에 그침.

안경산업 일반 현황

	생산(십억 원)		부가가치(십억 원)		고용(백 명)	
	2016	2021	2016	2021	2016	2021
규모	716	731	416	430	76	66
연평균 성장률(%)	0.4		0.6		-2.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인건비 상승과 제조공정이 어렵고, 3D업종으로 취급되어 신규 취업자 수는 2016년 7,600명에서 2021년 6,600명으로 2.8% 급감
- (수출) 우리나라 안경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 마스크 패션과 함께 패션아이템으로 부각되면서 2019년 이후 상승
  - 국내 안경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중국, 일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 25.4%, 19.2%로 전체 수출의 약 44%를 차지
- (수입) 중국으로부터 값싼 안경테를 중심으로 30% 이상이 수입되고 있고, 뒤를 이어 미국에서 15% 규모로 수입되고 있음.
- (발전방안) 안경테의 고부가가치화와 패션화 강화 및 온라인 판매 등 안경산업의 규제 개선 필요
  - 고령인구 및 성장기 청소년의 안건강에 적합한 가벼운 소재의 안경테, 쉽게 부러지지 않는 소재를 활용한 안경테 등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 최근 선글라스, 안경테, 컬러렌즈 등이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추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어려운 규제 개선 필요

## (2) 문구산업

- (특징)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와 2000년대 초부터 PC와 스마트폰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증가로 전통 문구 수요 감소세
  - 2011년부터 시행된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2)’로 문구 소매점이 줄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노트와 펜 등 전통 문구 수요 감소
  - 반면 감성 소비문화의 확산에 따라 컬러링북, 다이어리북, 스티커 등 문구 수요 패턴이 다양화되고 있고,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등 전자기기용 노트 속지는 증가 추세

---

2) 시·도 교육청이 학습 준비물 예산을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각 학교는 공개 입찰로 준비물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나눠 주는 제도.

## 문구산업 일반 현황

	생산(십억 원)		부가가치(십억 원)		고용(백 명)	
	2016	2021	2016	2021	2016	2021
규모	4,453	5,163	1,852	2,055	274	291
연평균 성장률(%)	3.0		2.1		1.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1인 가구의 증가로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주방·인테리어 소품으로 문구류의 역할 증대
- 친환경 키즈제품(친환경 물감, 모래놀이 등)의 프리미엄 제품 및 캐릭터 제품의 시장이 확대되는 등 문구산업은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음.
- (현황) 국내 문구 생산은 2016년 4조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5조 1,000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 역시 2.1% 상승했으나, 고용은 인건비 상승으로 1.2% 성장에 그침.
- (수출) 2010년 이후 캐릭터를 앞세운 디자인, 아이디어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최근에는 베트남, 인도 등 중산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급증
- (수입) 2010년 일본이 33.5%의 비중으로 가장 큰 수입국가였으나, 중국의 값싼 문구류의 증가로 2022년 중국의 비중이 40% 정도로 급증
- (발전방안) 수입 대응 국산 문구류 고급화와 차별화 정책 및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디자인, 소재, 감성, 캐릭터 등 다양한 제품차별화 노력과 함께 문구 소비의 차별화·고급화 추이에 따라 프리미엄 문구 시장 확대
  - 디지털화 진전으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 또는 새로운 기능 강화 제품 개발
  -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키즈 제품의 개발과 관련 제품의 수출 강화
  - 유아용 만화 캐릭터나 유명 연예인 등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과 캐릭터 제품 개발

### (3) 소형가전산업

- (특징) IT산업과의 융합과 브랜드·디자인·신소재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산업
  - IoT 기술의 발달로 기기들이 사용자의 사용패턴 등을 학습한 데이터들을 공유하면서 공간을 옮겨 사용해도 연결된 콘텐츠 활용이 가능
    - LG전자의 이동식 TV(스탠바이미)와 삼성전자의 포터블 스크린(더프리스타일) 등
  - 가심비 같은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
  - 1인 가구 증가로 차별화된 디자인·컬러를 갖춘 미니멀 감성의 소형 맞춤 가전이 증가하고, 가전 고유의 기능 외에도 실내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 (현황) 소형가전산업은 2016년 8조 6,000억 원 생산규모에서 2021년 9조 5,000억 원으로 2.2%의 성장률을 보임.

소형가전산업 일반 현황

	생산(십억 원)		부가가치(십억 원)		고용(백 명)	
	2016	2021	2016	2021	2016	2021
규모	8,627	9,597	2,781	2,830	289	294
연평균 성장률(%)	2.2		0.4		0.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수출) 소형가전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 비대면문화가 확산되면서 5.4%의 급성장 추이를 보임.
- (수입) 다이슨(영국), 발뮤다(일본) 등 프리미엄 소형가전제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발전방안) 프리미엄 소형가전제품의 수입 증가와 대기업의 기존제품 소형화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다이슨 등 프리미엄 가전은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국내 LG 등 대기업은 최근 가전산업의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전의 소형화와 신가전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국내 소형가전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취약하여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
- 제품의 브랜드와 디자인, 프리미엄화를 위한 디자인 전문가 육성, 디자인 역량 강화가 필요

이자연 |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원